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2 권 4 호

1980. 8

特輯：大學入學 試驗制度의 改善方向

- 大學入學 考查의 機能
- 大學入試制度에 關한 小考
- 大學生 選拔制度의 逆機能과  
改善方向

韓國教育開發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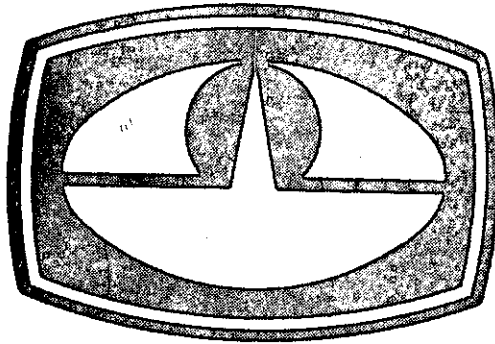
7호  
통권

# 교육개발

제 2 권 4 호

<통권 7 호>

1980



한국교육개발원

目 次

卷 頭 言 教育改善의 意味 .....金 忠 會 / 4

論 壇 韓國教育 이대로 좋은가? .....李 敦 珩 / 5  
平生教育에 로의 接近 .....張 眞 鎬 / 9

特 輯 大學入學 試驗制度의 改善方向  
大學入學考査의 機能 .....金 豪 權 / 11  
大學入試制度에 關한 小考 .....鄭 喜 卿 / 15  
大學生 選拔制度의 逆機能과 改善方向 .....李 相 周 / 19

連 載 外國의 入試制度  
日本의 入試制度 .....朴 修 賢 / 24  
英國의 入試制度 .....金 京 淑 / 27

研究報告 學制評價 準據模型 開發과  
現行學制의 分析 .....鄭 英 愛 / 29

教育理論 成年式으로서의 教育 .....李 洪 雨 / 36  
記憶過程에서의 個人差 .....趙 夕 姬 / 41

教育隨想 美國의 韓國人 學校 .....金 性 洙 / 45

教科教育 시리즈 體育教育의 效率化 方案  
國民學校 體育教育의 性格 .....柳 三 汰 / 47  
國民學校 兒童의 身體的 · 心理的 發達  
特性 및 교사의 역할 .....金 成 玉 / 53  
國民學校 兒童들의 運動學習 .....朴 贊 弘 / 57  
國民學校 體育學習의 評價 .....姜 信 福 / 62

院內動靜 消息 ..... / 68

編輯委員

委員長 金 亨 立  
委員 南 錫 祐  
尹 正 一  
李 大 揆  
李 延 燮  
李 定 根  
張 錫 祐  
張 彥 孝  
(가나다順)



# 教育改善의 意味

〈本院 教育放送部長·哲博〉 金 忠 會

근년에 이르러 論議의 深度를 더해 온 教育改善의 課題로서 過大規模學校 및 過密學級 解消, 義務教育年限延長, 入試制度改善, 敎育課程 및 敎育敎材의 刷新, 비敎育적인 社會環境의 淨化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커다란 課題들은 그 重要度로 보나 해결수단으로 볼 때 一時에 해결된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課題들이 뜻하는 바는 현재 우리 나라 敎育의 改善을 위해서 학교는 敎育이라는 課業을 能率的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最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指針이 되는 敎育課程 및 敎科書 등 敎育資料의 질적인 우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學校敎育의 實效를 거두는데 필수적인 학교 밖의 社會環境이 敎育的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外形的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의 內容的인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위에서 언급된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기회, 社會環境 등이 優良하게 改善된다고 해서 學校가 실현하는 敎育內容과 敎育活動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問題意識인 것이다. 이는 교육의 施設이나 敎科課程, 社會環境 등이 敎育의 質을 높이는 必要條件이기는 하나 充分條件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敎育의 質은 비敎育자인 학생들이 受容하게 되는 學習의 內容과 質이 어떠한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見解에서 出發된다.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敎育課程과 敎科書를 몇 차례 改編해 왔다. 지난 번의 敎育課程 개편에서는 學問中心理論에 더하여 탐구능력, 문제 해결 능력의 伸張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學校 또는 學校現場에서 이러한 敎育課程의 基本精神이 어느 程度로 實現되고 있

는지는 檢討해 볼 문제로 남아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을 育成하기 위해 試驗에 적합한 문제를 위주로 해서 敎授活動이 전개되고 있거나 않은지, 探究能力을 기른다고 하여 實物이나 現象에 대한 皮상적인 관찰만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 심각하게는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의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否定的인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과거의 敎育 개선에 투입된 努力의 代價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敎育의 質이 向上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교육의 中核을 이루는 것은 國家가 定한 敎育課程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敎授 및 學習活動인 것이다. 이러한 敎育課程 運營의 質的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부는 주기적으로 敎育課程을 改編·補完하고 敎科書를 開發·普及할 뿐만 아니라 敎員을 養成하며 施設投資를 한다. 한편 장학담당자들은 학교운영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도록 學校에 대해 助言과 指導를 하고 있으며 敎育研究機關은 필요한 敎育資料를 개발하고 敎師들은 敎授準備를 하여 敎育現場에 임한다. 이러한 교육에 관련된 여러 要素를 감안 할 때 교육 개선을 이룩하는데 최종적이고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현장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敎師들로 하여금 敎授活動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行政的 配慮가 필요하며, 나아가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선이란 被敎育者가 갖게 되는 학습경험의 質的인 向上의 의미이며, 따라서 교육환경의 改善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敎授—學習活動의 革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韓國教育 이대로 좋은가?

李 敦 珩  
(中央日報 出版製作局長)

## I

自由中國에 가본 사람들은 혹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음료(술파는 곳은 물론 다방까지)를 취급하는 점포의 「카운터」 뒷벽에는 『여러분이 지불하는 요금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교육세가 포함돼 있습니다』란 인쇄물이 붙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세란 自由中國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고 臺灣省이나 기타 지방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또, 自由中國의 憲法에는 中央정부는 총예산의 15% 이상, 省에서는 25% 이상,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총예산에 35% 이상을 교육, 과학, 문화비로 책정해야 된다고 明示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막대한 國防費에도 불구하고 中學까지 9년간의 국민교육(외국교육)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大韓敎聯, 私學財團聯合會 등 교직원단체에서 교육비 증액이나 교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정부족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전국 규모의 교육세 신설 등 실현 가능성이 적을 방법만을 내세워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는 것이고, 특히 영세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므로 당국으로서도 세금의 신설을 강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교육세를 地方稅로 하여 가구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말고 유흥업소(茶房포함)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만 부과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혹시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장사도 되지 않는데 요금만 비싸져 파리를 날릴 가능성이 많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 經濟界의 일부에서는 「企業淨化」라는 명분아래 고급 유흥업소 출입이나 심지어는 「스포트」로도 볼 수 있는 「골프」장까지 출입을 삼겠다(삼가겠다는 정도도 아님)고 결의, 이 바람에 유흥가가 「개점휴업」상태인 것은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所得의 再分配」장소가 고급 유흥업소이고 화폐가 돌고 돌아야 경제가 活性化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필자의 주장에 共感할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자녀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비싼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물론 퇴폐적인 행동은 단속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 아닐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육세를 신설할 때는 國稅로 하지 말고 고급 유흥업소(나이트클럽, 요정, 카바레, 살롱 등), 골프장, 경마장 등 이른바 사치성 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市·道마다 실정에 맞게 세율을 다르게 한다면 막대한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義務敎育의 延長·교원처우의 대폭개선 등 막대한 財源이 드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財源이 充足되어 최소한의 改善은 示圖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백리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첫 술에 배부른 일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뜩 생각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 방안」 가운데 학교 안의 보충수업 문제이다.

학교 밖의 과외수업을 없앤다는 것은 전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지만 학교 안에서의 보충수업은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예비고사건 본 고사건) 학교 밖의 과외수업에 代替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라도 있어야 실력의 下向平準化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유흥업소에서 징수되는 교육세로서 보충수업비로 사용한다면 보충수업비가 없어 보충수업을 받게 하기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얼마나 환원받을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열과외를 절대 반대하는 필자로서는 이 방법을 적극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 II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고질적이면서 시급히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는 「教育의 貧富差」와 「工夫 안하는 大學生」 문제일 것이다.

금년 봄 서울大學校에 수석입학한 2명(인문계·자연계)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모두 課外수업을 받았고 그 중 1명은 과목별 과외교사를 두어 한달에 1백만원씩 연간 1천여 만원을 과외비로 썼다 한다.

서울大의 금년도 신입생 가운데 과외수업경험자가 60%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 학원과외까지 포함하면 거의 1백%가 과외지도를 받았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요즘 부형간에는 과외수업을 시킬 수 없는 집에서는 자녀들을 一流大學에 보낼 염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한탄스런 화제가 되어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라도 머리가 좋고 약간의 노력만 하면 一流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경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즐거운 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터에 출세의 지름길로 양양한 앞날을 보장하는 일류 대학의 입

학길마저 막아버린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30대 이상의 6남매를 둔 A씨(72)의 가정을 예로 살펴보자.

부유했던 A씨는 현재 52세인 장남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으나 부자집 만아들이 흔히 그러하듯 공부를 하기 싫어하여 소위 독(獨)선생을 모셔다가 가르쳤으나 결국 2류 중학을 거쳐 3류 대학에 밖에 보내지 못했다. 다소 가정형편이 나빠지면서 자녀들은 역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둘째, 셋째, 넷째는 一流 중,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모두 합격했다.

이 중 가장 어려운 시기(6.25)에, 게다가 가정형편이 나빴을 때 국민학교를 졸업한 넷째가 A씨 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다시 차차 좋아지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자녀들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 다섯째는 二流 중·고교에 二流 대학, 여섯째 역시 二流 중·고교에 二流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

다섯째와 여섯째가 공부할 때는 벌써 치맛바람과 과외수업이 고개를 쳐든 때였다.

A씨의 가정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교육풍토와 현대의 교육풍토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近代化 이전의 傳統社會의 遺風이 짙었던 해방 직후에서 6.25까지는 부유한 가정의 어른이나 자녀들이 교육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6.25를 거치면서 더욱 왕성해진 교육열이 전체 사회의 교육풍토를 뒤바꿔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내용의 각도에서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난 날에는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내용 조차 치졸하여서 고교 3년까지의 교육이래야 학교에서 열심히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정보가 많아진 때문이기는 해도 내용과 수준이 훨씬 어렵고 높아져 낙제만을 면할 생각이라도 교과과외 외에 2~3가지 부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학원 정도는 드나들어야 하게 되었다.

40대 이상의 학부모들은 異口同聲으로 제 자식은 자기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옛날에는 답답할 때 성질이 돋고 주먹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해석됐지만 요즘에는 전혀 다른 次元의 의미를 받아들여 진다.

국민학교 2,3학년 교과서로 예로 들어보자.

자연 교과서에는 강낭콩의 싹은 며칠만에 트며 수술과 암술의 수는 몇 개이나 등의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 같은 내용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도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 배우지 않은 것들이어서 국민학교 3학년만 되어도 가르칠 실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그나마 옛날 교과서와는 달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다는 美名(?) 아래 교과서에는 질문만 있지 답이 없는 것이 태반이다. 답은 수업시간을 통해 교사가 가르친다. 만일 병으로 며칠 결석하게 되면 교과서로서는 답을 알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온갖 부교재를 사보게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없는 돈에 가정교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수준의 재검토도 새로운 교육풍토확립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더 가르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중학교가 무시험추첨제가 되고 고교가 연합선발고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당히 지도하면 고교까지는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무한한 것이고 실제로 다른 학부모, 다른 자녀와의 비교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최우선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 특히 일류 대학에 진학시킬려면 얼마나 많은 경비와 뒷받침이 소요되는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가난한 가정의 A군과 부유한 가정의 B군의 경우를 對比해 보자.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A군은 적당한 참고서를 구입하거나 주위의 친구나 교사에게 질문해서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B군은 집으로 찾아 오는 과외교사에게 물어 쉽게 해결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차가 생기는데 이것이 쌓여 광범한 교육내용 중에 벽이 부딪치는 일이 빈번할 것으로 그 차이는 아주 깊고 넓게 벌어진다.

여기에서 「교육의 貧富差」는 더욱 深化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工夫안하는 大學生」 문제도 심각하다.

앞서 거론한 서울大의 수석합격자는 합격소감

을 말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못했던 테니스 등 운동과 교양서적의 독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싫친 자야겠다』고 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도 못해보고 오직 공부에 시달리며 지내 온 10여년 게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소감치고는 실감나고 솔직한 것이었다는 것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의 공통된 평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고교까지 공부에 시달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나친 해방감에 파묻혀 공부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을 한다거나 거리로 뛰쳐나간다가나 하는 次元을 떠나서라도 대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질문해 보면 거의 모두가 『고교까지 배운 실력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평생 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다 해도 최소한 대학생까지는 실력을 가다듬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형제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은 현 여건 아래서 가장 近似値에 가까운 방안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솔직한 심정이다.

굳이 따져보면 이 방안 중에는 大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本考査制의 폐지 內申制의 公正性에 대한 의구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學校間의 실력차를 무시한 內申成績의 査定方法, 부족한 교수·시설 속에서의 입학정원의 대폭증원 등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王道가 없다」는 교훈적인 말이 암시하듯이 이미 설정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표출되면 신속 과감하게 시정해 나간다면 필자가 지적한 두 가지 병폐는 서서히 시정될 것으로 믿어마져 않는다.

다만, 시험이 있는 한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는 한 기발한 도피구가 마련될 것이며 과외의 근절이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平生教育에로의 接近

張 眞 鎬

<慶熙大學校 教授·文博>

최근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平生教育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교육사조나 이론이 그 시대의 사회적 요청이나 역사적 근거에서 발생되어 나오듯이平生教育도 현대사회의 변동상황과 현대인의 역사의식을 도의시하고선 그 본의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平生教育은 아직 정립된 이론이나 학문적 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다. 그 이유는 이 방면의 연구 연조가 아직 짧은데도 큰 원인이 있겠으나平生教育의 이론과 실체는 특정사회의 상황성과 역사적 필요에 의해 그 전개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平生教育의 교육이념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 1972년 東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차 成人教育國際會議에서 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많았고, 또 그 이해와 해석에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平生教育에 대한 논란은 학자들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 있는 일이다. 매스·컴 관계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회의 공통관심사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집요되어 가고 있는 평생교육의 관심이 앞으로는 더욱 활발히 사회문제에로 까지 확산되어 갈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도들에게는 저 오키 조심성과 염려가 앞서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1950년대에 거처간 새 교육운동의 혼란기에서와 같이, 평생교육도 한 유행으로 철학적 근거가 무시된 지엽적 표상운동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동시에 평생 교육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나름의 교육개혁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平生教育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하게 된다. 편의상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① 理論的 틀을平生教育에서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그 하나는平生教育을 낳게한 前提의 상황으로 人間化 教育의 흔적을 教育史 속에서 더듬어平生教育의 이념을 어떤 「네오휴머니즘」의 형태로서 현대교육사 안에 부각시킬 수 없을까 하는 문제와 더불어平生教育을 현대 사회변동 속에서 그 필요와 위치를 규명해 가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平生教育 그 자체 속에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生의 문제, 統合의 문제, 學習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生의 문제에는 삶에 대한 물음과平生에 대한 물음과 生의 週期에 대한 물음이 포함될 수 있다. 삶의 물음은 人生의 본질적 물음에서 그 깊이를 더 해 갈 수 있고, 生命의 순환현상에서 기능적 생존 형식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平生(Life-long)에 대한 물음은 繼起로서의 시간의 의미가 사회변동적·역사진전 과정에서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生의 週期에 대한 물음은 個人의 한 평생을 통한 다양한 生活場에서 일어나는 發達課業과 행동 양식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家族의 生活週期(family life-



cycle)와 나아가 한 특정 사회의 발전주기까지도 포함시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고려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개인을 위주로 하여 생각하는 서구적 평생교육 이념의 발달법에만 국한하고 싶지 않은 사회, 공동체적 평생교육의 위치 설정을 고려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기간이 되는 이론적 틀의 하나로서 통합(integration)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통합의 원리는 삶 자체가 斷絶의 연속이 아닌 것처럼 全生涯를 통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의 교육도 部分化 시키거나 단절된 교육 단계의 연속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통합개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크게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통합성, 인간의 發達過程에 따른 학습의 연속성, 삶과 교육 속에 어떻게 個體와 共同體를 융합시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조화시켜가는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 평생교육의 統合, 原理는 교육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學校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틀 속에서 통합한다고 할 때 삶을 主軸으로 한 각 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평생교육, 혹은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의 평가」등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평생교육의 기본 이론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틀은 학습에 관한 것이다. 평생 교육에서 강조되는 학습은 「언제, 어디서, 어떤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삶의 현장 혹은 삶 자체가 어느 하나도 학습 아닌 것이 없다. 더우기 현대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매스컴이나 각종 학습 매체들이 발달된 상황하에서는 自律的 學習의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는 餘暇를 보장해주는 公共福祉의 문제와 교육제도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均衡화·극대화시키는 문제와 교육기술적으로는 교육정보를 보편화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學習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자발적·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고, 평가하도록 이끌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삶 자체가 배움을 갈구하게 되고,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변동적 특성이다. 成人의 학습을 위한 「成人學」과 「老人學」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현대 사회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② 實際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을 살펴 보면 여러가지의 교육현상과 교육형태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社會·教育的 현상을 전제로 하여 생각할 때에 평생교육에로의 接近은 많은 시사점과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 나라의 복합적으로 얽힌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지금까지는 學校教育的 울타리 안에서만 그 문제점과 해결방도를 모색해 온 것이다. 學校教育 영역 안에서만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결국 악순환의 회전을 돌이킬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요인은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아직도 우리는 학교를 교육의 총본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敎育은 學校라는 기관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둘째로 우리는 一生을 통하여 교육받는 기간과 사회생활하는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人生의 生活周期中 20~30대까지는 學生期이고 그 이후에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시기로 모든 경향이 농후하다.

세째로 이상과 같이 볼 때 敎育 받는 기간은 一生에 있어 전반기의 어느 시기에 局限시켜 보게 되고 삶 전체를 한 單位로 하여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고, 또한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을 염두에 두고 평생교육의 영역 속에서 고려될 수 있는 實際的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할 수 있다.

그 첫째는 循環敎育(recurrent education)이다. 이는 OECD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상당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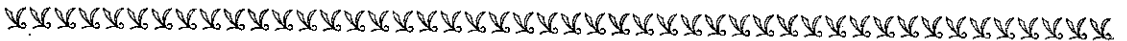
에 까지 그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교육형태이다. 순환교육의 특성은 義務教育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學校에 돌아오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순환교육은 早期教育이 아니고 後期教育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상은 우리 나라 교육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 대단히 참고가 되는 연구분야라고 생각된다. 즉 그 이유로서 OEC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환교육은 현대 교육제도의 결함을 치유하고, 未來의 욕구에 부합시켜가고, 순환적 방법에 의하여 個人的 한 평생에 걸쳐 교육의 기회를 分配해 주고, 나아가 教育—職業—餘暇—隱退라는 公式的 生의 주기를 지양하고, 이들을 서로 융합하여 교차시켜 나가면서 각자의 추구를 실현해 가는 데에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학교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한국 대학의 門이 개방될 수 있는 합리적 연구가 이에 수반된다.

둘째로 앞으로의 한국교육은 전국민에게 平生教育의 기회를 넓혀 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사회적 정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교육은 義務教育이나 學校教育에만 公共的 대책이 강구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은 平生教育에 까지 教育의 公共性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市民的 양성은 학교교육에 국한시킬 성질

의 것이 아니다. 國民의 의식과 기량과 교양과 全人性은 평생교육을 통해 부단히 향상되고 풍부해지도록하는 교육적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社會教育 진흥을 위한 법적 구상 속에 平生教育의 公共性이 강조되고 사회교육에 대한 재정적·시설적 지원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실은 지도자 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 입어서는 社會教育의 전문가 양성이 거의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교육과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고 몇몇 교육대학원에 사회교육 전공학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사회교육을 전문으로한 사람들에게 전문적 자격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사회교육을 담당할 지도자의 양성은 폭 넓은 平生教育의 이념과 원리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편성되어야 함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공분야의 개발, 자격제정, 사회적 제공과 진출, 산업기관과의 연계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역사적 전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요청과 교육적 기대가 개인 차원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있고, 사회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이다. □



# 大學入學考查의 機能

金 豪 權

(嶺南大學校 教授 哲博)

“入學考查의 機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入學考查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아, 그야, 入學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해 입학고사를 치르게 하는거지”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해 버릴 수 있다. 그렇다. 입학고사를 치르게 하는 이유는 입학하기에 알맞은 適格者를 가려내면서 適格者가 아닌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일 이외에 따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대답으로 우리의 의문이 다 풀릴 수 있다면 필자는 구태어 필자에게 배당된 40매의 원고지를 다 메꿀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기실, 우리의 문제는 이 入學適格者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大學과 같이 定員選拔的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입학고사에서의 入學適格者와 非定員選拔的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입학고사에서의 入學適格者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어떤 입학고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敎科內容을 어느 정도의 가깝고 먼 거리에서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 입학고사가 실제로 뽑아내고 있는 入學適格者의 의미는 엄청나게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입학고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일생과 사회에 끼치는 長期的이며 潛在的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캐들어 간다면, 우리는 입학고사의 機能의 다른 하나의 깊은 측면을 문제삼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入學適格者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

해 보아야 하겠다. 이런 검토는, 필연적으로, 입학고사의 현실적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大學의 입학고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適性選拔의 입장

入學適格者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정하는 하나의 뚜렷한 입장을 우리는 전통적인 心理測定理論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중심적인 개념은 이른바 適性(aptitude)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입장에 따른다면, 入學適格者란 다른 아니라, 입학하기에 알맞은 適性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문제의 열쇠는, 이 適性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달려있다. 心理測定理論에서, 適性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分量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에 숙달되는 능력”(the capacity to acquire proficiency with a given amount of training, formal or informal)을 의미한다. 이런 수준에서의 適性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適性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차이점의 대표적인 것은, 상식론적인 수준에서의 適性이라는 개념 속에는 한 직업 분야나 학문 분야에 관련된 知的能力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요구되는 性格的 適合度나 職業的 興味 등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心理測定論的인 수준에서는 이 후자의 性格的 適合度나 職業的 興味와 같은 情意的인 特性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학생이 醫師

職에 대해서 알맞은 適性을 가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醫師職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受容할 수 있는 知的 能力 뿐만 아니라 피를 보고도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든가, 침착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性格的 適合度』뿐만 아니라, 病人 者에 대한 무한한 同情心과 醫術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職業的 使命意識과 같은 『職業的 興味』도 잘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다. 이렇게 본다면, 心理測定論的인 수준에서의 適性이라는 개념 속에는, 한 직업에 요구되는 知的 能力的 資質이라는 측면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性格的 適合度나 職業的 興味와 같은 情意的 特性은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배제 되어 있는 셈이다.

心理測定論的인 수준에서의 適性의 개념 속에서 왜 情意的 特性이 빠지게 되었는지 또는 여러가지 適性檢査가 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性格的 適合度나 職業的 興味를 소홀히 다루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適性에 대한 상식적인 期待와 실제의 適性測定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이러한 거리는 適性測定의 유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適性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그 다음에 고찰해 보아야 할만한 점은 適性檢査와 教科內容中心의 學力檢査와의 차이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適性檢査와 學力檢査는 다같이 개인의 “習得된 能力”을 측정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學力檢査는 해당 교과내용에 관한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을 재고 있는 반면에 適性檢査는 덜 체계적이며 덜 구조화된 일반적인 학습상황에서 얻어진 능력을 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대학 입시에 관련된 學力考査는 고교 재학 중의 3년 동안에 해당 교과 내용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업조건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학습했는지를 주로 측정하고 있는 반면에, 適性檢査는 보다 장구한 시일에 걸쳐 비교적 일반적인 知的 能力이 어느 정도나 측정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學力檢査가 측정하는 능력은 보다 더 意圖的인 학습이나 훈련의 영향을 좀더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適性檢査가 측정하는 능

력은 그러한 意圖的인 학습이나 훈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程度의 차이일 가능성이 더 많다. 좀더 端的인 예를 든다면, 再修生의 학원 수강은 學力檢査의 득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단기간 동안의 그러한 노력이 適性檢査의 득점을 크게 바꾸어 놓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適性選抜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入學適格者란 구체적인 여러 교과내용의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학생보다는 다분히 일반적인 知的 能力이 높은 학생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교적 短期間에 걸친 개인의 집중적 노력이나 개인의 직접적인 교육적 환경조건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적은 補償밖에 받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론적 기대와는 달리 適性選抜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情意的 適合도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學力選抜의 입장

우리 나라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學力檢査, 즉, 大學入學豫備考査와 각 대학의 本考査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앞으로 각 대학이 주관하는 本考査는 폐지되게 되었지만, 이 두 가지 考査는 다같이 교과내용에 밀착된 능력을 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이 두 가지 考査간의 相關도가 공표된 바는 없지만, 전자가 객관식 출제로 되어 있고 후자가 주·객관 혼용의 출제였다는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相關도는 적어도  $r=+0.90$  이상으로 높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두 가지 고사는 명백히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수험자에게 二重의 고통을 주는 이외의 효과를 가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에의 入學適格者를 學力의 기초 위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입장을 이론적으로 正當化할 수 있는 길은, 한 학생의 과거의 학업성적이야말로 앞으로의 학업성적의 最善의 豫言値라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實證的인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의 학업성적과 一般的學業適性(또는 知能) 사이에는 흔히  $r=+0.70$  내외의 상관도가 관찰될 수 있는 반면에 인접하는 두학년 간의 동일 교과 사이에는 흔히  $r=+.80\sim+.90$  정도의 지극히 높은 상관도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교과학습에 밀착된 學力檢査의 특점은 다른 어떤 종류의 知的能力的 측정치보다도 장차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높은 豫言的 妥當度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보면, 學力檢査의 특점 속에는, 개인의 일반적인 知的能力 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을 위해서 바친 개인의 노력의 정도나, 교과학습에 대한 개인의 학습동기나, 학습흥미와 같은 長期的인 情意的 特性의 측면이 크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長期間에 걸친 개인의 情意的 特性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學力檢査의 豫言妥當度를 높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適性選抜의 입장이 다분히 개인의 일반적인 知的能力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듯이 높은 豫言的 妥當度를 자랑하는 學力選抜의 입장도 장점과 함께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내용에 밀착된 학력검사는 장차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개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선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거의 학업이 시원치 못한 개인은 비록 그의 知能이나 適性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잘라버린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력검사에 있어서는, “장차의 可能性”이란 낱말은 거의 아무런 고려도 받지 못한다. 오직 철두철미하게 “과거의 實績”만이 고려될 따름이다. “大器晚成”이라는 낱말도 學力 위주의 선별과정에서는 냉혹하게 외면당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學力選抜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入學適格者는, 교과학습에 관련된 개인의 과거의 학업성취도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가 개인의 교과학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知能이나 適性을 가진 두 사람의 학생의

경우 좀더 좋은 교육적 조건에서 학습하거나 보충수업을 더 많이 받거나 또는 심지어 再修를 하는 쪽의 학생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조차 있다.

### 3. 우리나라의 大學入學考査

최근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過熱課外 現象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학의 定員卒業制와 더불어 大學入試의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大學入學豫備考査와 더불어 二重으로 치르게 되어 있는 本考査를 폐지하는 한편 高校의 內申成績의 反映率을 높이고 대학의 自由裁量權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大學入學豫備考査가 철저한 학력 위주의 고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大學入學豫備考査에 관한 한, 대도시의 좀더 교육적 조건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골의 교육적 조건이 불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학업성취에 관한 사회적인(家庭을 포함하는) 압력을 좀더 많이 받는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압력을 덜 받는 여학생들보다도 약간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쪽에서 본다면 폭넓은 인간교육보다는 대학입시 지향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가 유리하고 고등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을 끝고루 강조하는 학교보다는 豫備考査에 대비하여 偏重的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학교가 사실상 더 유리하다.

高校의 內申成績의 反映率을 높이는 조치는, 예비고사에 있어서의 도시-지방의 불균형을 얼마간이라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한 학교의 내부에서 학생간의 相對的 競爭을 加熱시킨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 4. 入學考査의 潛在的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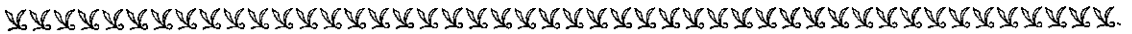
대학의 입학이 개인의 일생과 사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의 문제는 입학고사가 갖

고 있는 잠재적인 機能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대답될 수 있다. 대학의 입학고사가 갖고 있는 이런 潛在的 機能은 自我實現이나 自我概念의 발달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가능하고 社會階層化나 社會的 上昇이라는 사회학적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후자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이라는 자격이 사실상 高級官僚나 下級官僚 이른바 “화이트 칼라”(知的 職業人)와 “블루 칼라”(肉體勞動者), 高所得者와 低所得者를 갈라 놓은 기준이 되고 있는 한, 대학입시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 機能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입학의 이런 機能은 自由社會의 한 특징이며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露骨化되고 尖銳化되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은 적지 않게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과도한 敎育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학의 이러한 社會階層化의 기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입학은 어려워 졸업은 쉬운 대학의 현재의 상황은 知性的 연마와 학문의 탐구라고 하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마저 파괴할 염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경우 대학은 知性을 닦고 학문을 탐구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自我實現을 위한 道場이기 보다는 보다 나은 身分을 따는 生存競爭의 터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고나서야 문득 대학의 이러한 냉혹한 非理를 깨닫게 된 대학생들의 좌절과 환멸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過密授業은 흔히 論難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대학의 過密授業이나 不實敎育이 별로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대학이 바로 대학 자세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야 대학입학고사도 제대로의 건전한 機能을 발휘할 수 있고 초등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중등교육을 거쳐 대학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교육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



(18페이지에서)

## ○ 맺는말——점진적 변화와 꾸준한 전진

7·30 조치로 교육상황의 전망이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여태껏 舊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적 적합성(authenticity)보다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만 汲汲해 왔던 대학입학고사제도의 論議는 이미 意味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 이제는 敎育正常化方案에 제시된 課題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의 戰略形成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요청된다고 믿는다. 大學入試制度도 이러한 關聯性(context)속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집약된 原則에 의하여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點數를 잘 따내는 학생을 기를 것이냐라는 교육기능에서부

터,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느냐의 교육기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 교육기능의 本領의 회복은 너무 오래동안 국민전반에 스며든 「大學入學에의 執着」을 점진적으로 치유해나가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작업의 中心은 역시 새로운 교육정상화 방안에 입각한 새로운 大學入試制度의 개발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는 일이다.

敎育이 連續的인 過程인 까닭으로 初等·中等·高等敎育機關 사이의 유연한 연계가 지어질 수 있을 때 敎育받는 個個人의 성장발달에 無理한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이 順調롭게, 각 단계의 성장이 調和있게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念願을 담아 敎育的인 無理와 非理속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종사해 온 筆者의 小考를 맺는다. □

# 大學入試制度에 관한 小考

— 高校教育 正常化를 中心으로 —

鄭 喜 卿

(梨花女子高等學校 校長)

## ○ 序——論旨의 根據

激增하는 대학입학 희망 인원(교육열)과 이에 따르는 非正常的이라 할만한 경쟁의식, 그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시준비 교육이 이 땅에 過熱課外라는 學校外 교육현실을 낳은 지 근 20년 간에 걸쳐 학교교육의 弱體化와 기형화 현상은 극심해졌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심신발달상의 장애와 사회적인 불만·불안 이들 끊는 잡음이 극에 달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7·30教育正常化 및 과열과의 해소방안의 발표 이후 한국의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전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고교교육 更生의 活路를 스스로 개척해야 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겠다.

大學入學定員의 대폭적인 增員은 오랜 동안 부르짖어 왔던 주장이며, 이는 격심한 경쟁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既存 대학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전일제 대학운영을 한다는 일이라던가, 그간 한없이 벌려만 놓은 雜多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간소화하고 주지일변도의 교육과정을 전인적인 성교육에 필요한 多樣한 특별활동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나가므로써 국민 기본 교육인 고등보통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數年에 걸친 교육계의 希求事項이었다. 더욱이 과감한 教育投資의 결의와 전망은 教育更新을 위한 필수적인 支援要件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모체가 된다고 믿는다. 물론 과열과의

가 교육내적인 요인이 아닌, 일부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즉 교육외적요인에 의하여 더욱 심각하여 졌던, 그간의 過程으로 보아 意識構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일부 극성스러운 과열과의 근본적인 해소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들의 신뢰회복이 어렵겠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교육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현실화되고, 또한 이와 관련된 社會政策(例: 이미 제시된 고용과 學歷 調整, 高級人力稅 등)이 併行 실시될 때, 偏執되고 歪曲된 의식세계의 변화도 의외로 쉽게 이루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관심을 다시 교육내적인 諸問題로 돌려보면 그간 大學入試制度 自體와 고등학교 교육현장과의 [膠着狀態]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하겠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評價하기 위한 대학입학시험이 아니라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은 불가피하게 그 현상이 기형화할 수밖에 없었다. 兩者의 유착상태에서 오는 難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쉬임없이 大學入試制度가 修正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修正作業은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현장을 더욱 심한 過敏狀態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빚어왔다. 바람직한 人間으로 성장하도록 고등학교가 도와주었느냐에 의하여 고교교육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非敎育的인 방법으로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을 대학에 進學시켰느냐에 의하여 評價되는 획일적인 單一評價尺度 때문에 고등학교의 過敏症狀는 날

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高校教育現場의 良識과 正當한 公지는 날이 갈수록 쇠퇴해 갔던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精練된 大學入試制度라 할지라도 中等學校 教育의 全部를 평가할 수는 없으며, 또 評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教育이 갖는 知的 訓練機能 이외에 情意的 發達의 促進機能(支援機能)과 폭넓은 人性的 發達을 助長하는 學生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서로 어울려 調和를 이루는 것이 학교교육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모든 教育機能의 評價를 大學入試에 期待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이 自明해진다. 大學入試는 大學教育에 맞는 適性を 理想的으로 綜合的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部分的으로 評定할 수밖에 없는 限界性을 가진다. 大學入試制度가 中等學校 教育의 모든 문제를 떠맡을 수 없드시 中等學校 教育이 大學入試에 그 全部를 의지하고 그 成敗를 결수는 없다는 原理를 우리는 깊이 杼우쳐 받아들여야 하는 時點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자칫하면 불려이 르킬 수 있는 생각 즉, 中等學校 教育과 대학입시제도와는 별 相關이 없는 別個의 것이라는 또 다른 극단의 反動的 思考를 克服하고 大學入試制度의 편안한 改善과 中等學校 教育현장의 성실한 教育正常化의 努力, 그리고 國家政策水準에서의 教育支援策이 계속될 때, 우리나라 教育은 진실로 교육다운 教育에의 새로운 里程碑에 들어 安定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難題들을 안고 계속 부분적인 修正作業을 거듭해 오므로서 오히려 그 性格마저도 모호해져 버린 대학입학시험 제도는 새로운 教育의 局面을 맞이하여 앞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재정립되는 작업이 專門家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小考에서는 단지 中等學校 教育정상화를 염원하는 뜻서 한번씩은 考慮의 대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에 爭點들을 中等學校 教育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提示해 보고자 한다.

## 1. 權威와 責任의 分擔

대학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에 있어서의 참

여는 國家와 大學當局과 中等學校 등 三者의 關係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國家는 國家政策으로서의 教育政策樹立과 그 집행을 통하여 國民교육 전반에 關心하며 教育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國家가 필요로 하는 高級인력 養成기관인 대학교육의 틀(frame)에 필연적으로 關心하게 된다. 外國의 입시제도를 살펴 보아도 佛蘭西의 바칼로레아, 英國의 GCE, 독일의 아비투어, 美國의 學業適性檢査(SAT), 그리고 197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日本의 共通 第一次 學力 考查制度 등이 물론 이 운영과 시행의 責任은 專門機構에 이양 또는 위탁되고 있으나, 一次의 으로는 그 나라들의 國家的 關心을 反映하고 있다는 점에서 國家考試의 (National Testing) 性格을 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中央集權의인 教育政策에 의하여 國民教育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國家的인 大學入學考試制度의 裝置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969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大學入學 豫備考查制度는 크고 작은 修正과 변천과정을 과정을 거쳐 왔으나, 우리나라의 국가고시 제도로서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것은 두루 인정받고 있는 바이다.

학생을 받아들리는 대학당국의 권위와 책임은 소외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국가고시인 豫備考查와 크게 다를바 없는 本考查를 課함으로 해서 별 쓸모 없는 二重의 負擔을 학생에게 課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앞으로 연구하기에 따라서는 해당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보장할만한 독특한 학생선발제도의 장치가 설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대학당국의 전문적이면서도 教育적으로 의미 있는 창의적인 학생선발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한 방안이 國民들에 의하여 납득될 만한고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승인될 만한 것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국가고시제가 미처 거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獨自的인 參與로서 대학의 독자성이 反映될 수 있는 길은 保障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高等學校의 大學入學制度에의 참여의 길은 이미 丙申制의 強化方案에 의하여 충분히 保障되





과목을 가능한 한 모두 大學入試科目에 포함시키는 편으로 흘러나왔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大學入試制度가 고등학교 교육의 모든 문제를 골파로 反映하고, 또한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을 左右하는 魔力을 가졌던 「膠着狀態」의 결과로해서 더욱 強化되어 왔었던 것이다.

基本主知科目만 入試科目에 包含하면 學校教育이 主知科目 一邊로 운영되는 非理가 생기고, 餘他科目은 소홀히 다루워지거나 아예 소외해 버리는 현상이 극심했던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이제 高校教育正常化 方案이 實効를 거둔다는 前提下에서 大學入學考查科目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그간 增加賦課해 오기만 했던 고등학교 이수교과목을 정리하여 축소 통합하여 재조정한다면 敎科目群으로 크게 나누어짐으로 해서 入試科目의 정비도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는 고교성적 대신제가 강화됨으로써 고교생활 3년간에 걸친 成就의 결과로써 하루이틀간에 걸친 評價를 代置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드시 無理없는 敎科教育課程과 活動教育課程이 어울리는 말하자면 中核教育課程運營의 원리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전제를 침부하고자 한다. 모든 敎科目을 主知的인 水準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은 그 枯息的인 大學入學依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自由를 되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正常的인 教育課程運營의 결과로 얻는 3年間の 다양한 학습경험을 잘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잘 說明해 주는 生活記錄簿가 될 때에 大學入試科目의 대폭적인 조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하루에 열 세넷 과목을 치루워야 하는 현재의 大學入學豫備考查에서는 불가피하게 압기력 중심의 평가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짙었으나, 만일에 시험과목이 조정 통합되고 수험시간을 좀더 잡을 수 있다면 보다 적절하게 대학교육의 修業適性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관련 과목의 종합고사가 가능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던

첫째, 대학교육이수에 필요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다 높은 정신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고사제도를 개발함으로써 고등학교 현장에서 입시준비만 겨냥하는 토막지식의 주입(소위 OCR card노이로제)에 급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새로운 흐름을 도입케 하기를 희망한다.

둘째, 그간 고교교육의 活動型 教育課程으로 제시된 實業科目들(家事, 상업 공업, 기술 등)을 필답고사를 통하여 評價함으로써 고교현장에서는 實技練習는 치지도의하고 敎科型 主知的 注入에 머물러 왔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경험이었다. 우선 現行 考查制度로서는 所期の 評價結果를 얻을 수 없다고 判斷되는 敎科目은 筆答型 考試에서 除外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한다. 實際로 실업과목에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考試에서는 不利한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해야 할 것 같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뜻이 있다. 기왕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과 그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考試科目의 배점은 고교에서의 그 교과목의 이수단위와 비례해야 할 것이다. 현행 예비고사에서의 배점은 이수단위수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을 고교교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히 科學科目과 第2外國語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떤 연구를 거쳐서라도 시정되어야 하며, 社會科 관련 科目인 人文系, 社會文化, 世界史, 國土地理, 人文地理 등 4個科目間的 難易度의 差異가 극심하여 자연히 학생들의 유리한 得點을 위한 特定科目選好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고교교육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다.

바람직하게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은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바쁘게 充滿하게 생활하게끔 자극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不必要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考試科目의 배점의 재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4페이지에 계속)

# 大學生 選拔制度의 逆機能과 改善方向

李 相 周

(서울大學校 敎授 敎育學)

## 1. 머리 말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入學試驗만큼 국민의 비상한 關心과 物議를 일으킨 社會問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入試制度만큼 젊은이의 生活과 學校敎育에 質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드물 것이다. 많은 젊은이와 成人들은 어렸을 때 “入試地獄을 통과하면서 빠져진 試練과 苦痛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入試關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失敗와 挫折을 체험했을 것이다. 學父母들은 어린 子女에게진 부훈 期待와 所望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不安과 焦燥에 애태우며 무겁고 고된 精神的, 經濟的 負擔을 지고 살아야 했다.

흔히 入試制度는 한국 敎育이 안고 있는 모든 병폐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暗記爲主 注入式 敎育도 입시체도의 맞이고, 靑少年 非行과 어린이의 虛弱體質도 입시의 죄이며, 精神病院을 찾는 젊은이의 수가 느는 것도 入試 恐怖 때문이며, 眼鏡店에 드나드는 학생수가 느는 것도 입시공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탄은 入試制度를 다소 지나치게 贖罪羊으로 삼는 감은 있으나 상당한 정도는 정당한 不平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經濟企劃院의 調査에 의하면 한국의 父母들은 1년에 82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子女의 入試準備를 위한 課外授業料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1년의 總課外授業料가 실제로는 1兆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推定하는 사

람이 있지만, 823억원만하더라도 그것은 막대한 돈이며 젊은이의 人間完成을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入試豫想問題 풀이 式의 敎育을 위해서 그러한 돈을 쓴다는 것은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浪費요, 損失이라 아니 할수 없다.

그리고 經濟企劃院의 調査에서 國民學生의 5%, 中學生의 6%, 高等學生의 10%가 課外授業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한 통계치도 실제보다는 훨씬 過少推定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學校敎育에 대한 社會的 不信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全人敎育을 말아해야 할 學校敎育을 편협한 入試準備敎育으로 非正常化시키는 社會的 壓力이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하기에 족할 것이다.

특히 大學入試 때문에 學生도 아니고 社會人도 아닌 再修生이라는 周邊集團이 누적되는 것도 하나의 큰 社會問題로 나타나고 있다. 再修生 집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心理的 「کم플렉스」나 증대하는 規模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집단이다. 再修生들 중에는 그들이 경험한 欲求挫折로 인하여 劣等感, 罪意識, 強迫觀念 등 실로 건강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再修生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80年度 大學豫備考査 응시자 50만 명 중 37%에 해당하는 18만 명이 再修生이었으며 大學入試者 總數 중 再修生이 차지하는 比率이 44%나 되었다. 再修生活이 大學進學을 위해서 다소 效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韓國의 젊은이들이 人生을 살아가는데 별 의미도 없

는 入試豫想問題 풀이를 위해서 自我形成의 결정적 시기인 青年時節을 온통 바치고 있는 것은 실로 國家의 將來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再修生으로 인하여 6-3-3-4制의 학제가 6-3-3-x-4制라고 하는 기이한 學制로 변해버린 것 같은 인상마저 주게 되었다.

이러한 亡國的인 教育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政府가 단행한 「7·30 教育改革」은 學校教育을 正常化시키고 國民教育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教育問題에 관한 한 과당성있는 劃期的 措置에는 副作用이 따를 위험성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7·30 조치의 方向에 따라 教育革新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補完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뜻에서 이 小論에서 大學生 選拔制度에 국한하여 금번에 政府가 결정한 教育改革案을 再檢討하여 그것의 具體的 實踐方案과 補完策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大學入試制度의 逆機能을 분석한다.

## 2. 大學入試制度의 逆機能

入學試驗의 주된 機能은 學校教育의 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被教育者를 選拔하는 것이다. 傳統社會에서는 주로 血統이나 身分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였으나 現代社會에서는 개인의 能力과 業績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知的 能力에 의해서 學生을 선발하는 入試制度가 보편화된 것이다. 朝鮮朝 社會에서는 젊은이가 제아무리 유능해도 兩班의 자식이 아니면 四學이나 成均館에 입학하기 어려웠다, 日帝統治 下에서 입시제도도 있었으나 韓人은 日人에 비해서 심한 差別을 받았고 中學校나 大學에 진학하는 韓人의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그리 큰 社會問題가 되지 않았다.

입시제도가 큰 社會問題로 등장한 것은 解放 후의 일이다. 해방 이후 教育制度가 民主化되고 義務教育制度가 수립됨에 따라 그동안 억압되었던 國民의 教育熱이 갑자기 폭발하였다. 그리고 6·25 이후 갑자기 나타난 베이비 붐에 의한 學齡

人口의 急增은 國民의 期待上昇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學校의 門에 큰 壓力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國家의 제한된 財政的, 人的 資源으로서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教育需要를 도저히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入試競爭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入試는 “萬人의 萬人에 대한 鬪爭”의 양태로 까지 변하게 된 것이다.

入試競爭을 소위 “入試地獄”이라 하는 사태로 까지 몰고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學校間의 教育隔差와 그와 결부된 “一流病”이라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였다. 나는 一流病이라는 것을 단순히 虛榮心이나 看板主義의 不合理한 思考로만 보고 싶지 않다. “一流病”의 심리는 子女의 社會準出을 위한 가장 確實한 진학기회를 가지려는 合理的 思考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리고 一流學校를 지망하는 열기를 높인 것은 社會의 階層構造, 雇傭慣行 및 일반적 價值觀과 학교間에 實제하는 教育隔差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入試制度를 통하여 學生을 選拔한다는 것은 入試가 사람들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취지향적 現代社會에서 사람들의 地位獲得에 있어서 能力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能力은 學校教育에 의해서 크게 결정된다. 그리고 학교에 취학하는 것만으로 특정한 社會的 地位를 차지할 수 있는 資格을 認定받는 (qualification) 경향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1학생선발은 個人的 階層移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入試試驗이나 學生選拔의 과정에서 機會均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며, 특정 社會集團이 의도적으로나 무의도적으로 差別받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入試制度는 위에서 지적한 機能 이외에도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된다는 여러 가지 教育的 順機能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入學試驗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學習動機를 불러 일으키고 學習의 方向感覺을 주며, 학습한 내용을 再整理하고 復習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入試는 敎師들에게는 수업의 效果로 評價할 기회를 주고 教育改善의 方向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며, 數權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入試는 學生選拔의 公正性을 一般人에 보여주는 구실도 한다. 이처럼 入試는 教育的 機能을 돕는 여러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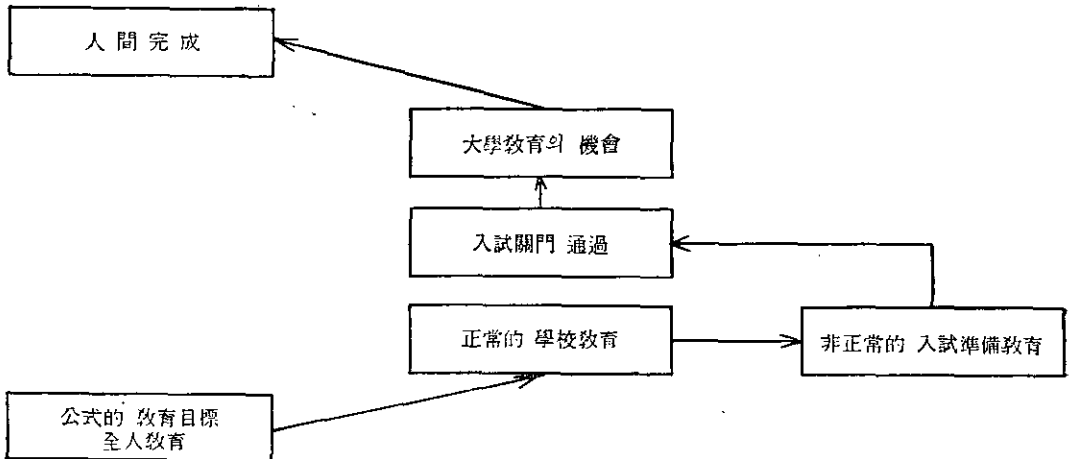
문제는 그러한 入試의 順機能도 入試競爭이 過熱된다든지 學生選拔의 基準이나 入試問題의 內容과 形式이 그릇되게 偏向되면 逆機能으로 변질한다는 것이다. 入試競爭이 치열하게 됨에 따라 學習動機보다 合格動機가 앞서게 되고, 教育的 經驗이 되어야 할 入試準備가 恐怖의 經驗으로 변하며, 教育效果에 대한 評價가 몇 流校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判定이 되며 全人教育을 위한 教師의 權威가 合格者를 생산해내는 魔術의 권위로 변하고 能力評定의 公公性은 점수에 대한 迷信을 낳으며, 父母의 教育熱은 “치맛바람”으로 증발하게 된다.

나는 大學入試制度가 그 동안 심각한 逆機能을 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을 入試制度和 公式的 教育目標 사이의 不一致性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學校教育의 目標는 全人教育인데 대해서 入試制度는 全人教育을 위한 正常的인 學校教育을 받은 學生에게는 不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大學入試의 關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非正常的인 入試準備教育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大學進學의 機會를 갖는다 할지라도 下級學校에 在學하면서 오래 동안 非正常的 教育을 받았기 때문에 人間完成이라고 하는 全人教育의 目標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現代 大學入試制度에 비추어 보면, 大學生 選拔은 주로 筆答考査에만 의존하고 있고 대학예비고사에서나 대학본고사에 있어서 出題되는 試驗問題가 주로 選多型의 客觀式 問項이라는 점이 全入教育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筆答考査方式과 客觀式 問項은 人間의 能力과 資質을 재는데 큰 제한점이 있으며, 學生들은 그 制限된 범위 안에서 入試準備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學生들은 단편적 知識의 暗記에 몰두하게 되고 學校教育과 課外指導는 創意力, 思考力, 表現力과 같은 高等精神能力의 배양보다는 단편적 知識과 應答要領의 傳授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大學生 選拔考査, 특히 本考査가 제한된 教科目에 국한해서 출제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학교교육에서 入試科目에 포함되지 않은 教科는 소홀히 가르쳐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듀이가 말한대로 “教育은 生活이다” 學生들이 學校生活을 어떻게 하는가는 選拔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筆答考査로는 그것을 고려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해서 學生들의 特別活動, 指導性, 價値觀, 藝術的 才能 등이 大學生 選拔의 基準에서 제외되고 學生들이나 교사들은 教科書中心의 수업에만 전념하게 된다.

다음에 우리나라 大學生 選拔의 逆機能이 일어나는 원인을 進學을 위한 學生 選別의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그림>

公式的 教育目標과 入試制度의 不一致性

教育制度는 터너(Turner)가 잘 분류한 것처럼 後援移動(sponsored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형의 교육제도와는 다른 競爭移動(contest mobility)을 가능케 하는 美國型의 교육제도를 채택 進學을 위한 自由競爭을 최대로 보장하고 學生選拔의 시기를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있다. 그래서 대학진학의 可能性이 高校卒業 時에야 결정되기 때문에 大學進學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職業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社會에 進出하게 된다. 미국과는 달리 學校 이외의 職業訓練 機會와 就業의 機會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各國의 教育制度에서처럼 어느 정도 早期選別制度를 가미해야 高等학교 졸업생의 社會進出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많은 高校生들이 현실적으로는 大學進學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교졸업시까지 大學進學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未來自我像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制度的으로 欺瞞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大學進學을 못하고 마는 학생에게는 學校教育이 適合性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大學生 選拔의 과정에 숨어있는 差別의 機制를 入試制度의 選機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다. 現代 大學生 選拔制度는 農村과 低所得層의 학생과 女學生들에게는 不利한 제도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學校教育課程은 대체로 男性·都市 中心의 內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상이 짙다. 물론 이점에 관한 좀더 自信있는 단언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教育課程에 대한 體系的인 分析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근거있는 假定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한 研究에서 農村學生은 農村生活에 관련있는 內容에 관한 學業成就度가 더 높고 반대로 都市學生은 都市生活에 관련있는 內容에 관한 학생성취도가 더 높으며, 男女學生은 각각의 性的 役割에 관련된 內容에 관한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農村學生이나 女學生이 大入試 合格率이 낮은 것은 그들의 基本的 知的 能力이 낮기 때문이기 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大入試 問題가 그들에게 不利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大學 入試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큰 經濟的 負擔을 요구하는 課外授業을 받

으나 못 받느나가 入試에서의 當落을 좌아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課外授業이 요하는 부담을 질 經濟的 能力이 없는 低所得層의 子女는 大學進學을 위한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머리싸움”이 아니라 “돈싸움”에서 敗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能力에 따라 고루 教育機會를 가지게 한다는 平等의 精神에 어긋나는 것이다.

### 3. 大學生 選拔制度의 改善 方向

政府가 이미 公布한 바 있는 教育改革案에 의하면, 1981學年度 大學生 選拔은 이제까지 실시해왔던 大學別 本考査는 폐지하고 大學豫備考査와 高校內申에 의해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來년에는 예비고사성적 50%이상, 내신성적 2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大學의 裁量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高校內申成績의 비중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內申成績에 의해서만 大學生을 選拔을 한다고 발표했다. 大學豫備考査는 81학년도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客觀式으로 出題하고 82학년도부터는 主觀式을 가미할 것이라고 했다. 高校內申成績은 地域別, 學校別 差異를 인정치 않고 同一하게 반영하며 성적은 席次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改革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高校內申成績을 반영하고 入試問題에 主觀式을 가미함으로써 全人教育을 회복시키고 學校教育을 正常化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둘째, 內申成績을 지역별, 학교별 차이를 인정치 않음으로써 都農間의 教育機會均等を 보장하여 農村教育을 강화하고 學生들의 都市集中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장차 高校內申成績에 의해서만 학생선발을 함으로써 大學生 選拔權을 敎師들에게 넘겨줌으로써 敎師들의 信賴와 敎權을 회복시키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금번 教育개혁의 이와 같은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大學生 選拔方法을 合理的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補完策을 제안한다.

(1) 銓衡方式: 各大學은 입학지망자의 高校內 申書와 高校卒業 資格試驗(대학에비고사) 成績을 합친 서류전형으로 入學生을 선발한다. 두 가지의 비중은 內申成績 50%, 資格試驗成績 50%로 한다. 政府의 발표대로 장차 內申成績만으로 學生을 선발하는 경우 大學에서 특정분야의 學業을 이수할 基礎 能力을 갖지 못한 學生들을 입학시켜 大學教育의 效果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高校教育을 正常化시키고 地域間的 教育機會均等을 보장하기 위한 政府의 의도는 內申成績의 反映率 정도로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資格試驗 科目: 資格試驗의 科目은 大學教育의 分野別로 그 분야 학문의 기초가 되는 4~5個 科目씩을 설정한다. 大學教育의 分野를 10個 정도로 설정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分野에서 기초가 되는 敎科目을 高校教育課程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高校에서 가르치는 모든 敎科目이 10個 分野에 고루 포함되도록 유의한다.

(3) 資格試驗의 方法: 資格試驗의 출제방식은 주로 논문식으로 하며 과목당 2~3時間 정도의 應答時間을 준다. 藝體能分野는 자격시험에서 實技試驗科目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實技試驗을 共同管理케 한다.

(4) 資格試驗의 回數: 자격시험은 1년에 1회씩 每學年度末에 실시하며 2회까지 應試機會를 준다.

(5) 資格試驗의 응시시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高校生은 2學年末에 자격시험을 응시하게 한다. 資格試驗에 不合格한 학생의 대부분에게 職業教育을 실시하고 敎師가 不合格者 중 한번 더 資格試驗을 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만 3學年末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6) 資格試驗의 有効期間: 자격시험은 5年間 有効하도록 한다. 資格試驗에 합격하고 一時 就業을 하거나 軍服務를 마치고 大學에 진학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資格試驗의 管理: 教育評價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學校의 모든 資格試驗을 이 기구로 하여금 관리케 하도록 한다. 이 기구는 試驗을 관리하더라도 出題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많은 問題를 출제하게 하여 그 중에서 선정하여 자격시험에 사용하도록 한다. 採點의 客觀性을 살리기 위하여 採點 基準表를 마련하여 全國의 優秀한 高校敎師들로 하여금 채점하게 한다.

(8) 內申成績의 基準: 高校 內申書는 高校 3년간의 學科成績, 特別活動, 指導性, 出缺狀況, 표창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한다. □

\*\*\*\*\*

# 日本の 入試制度

—內申制度를 중심으로—

朴 修 賢

(本院 研究員)

## I. 序

일본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6-3-3-4제의 單線型 敎育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교간의 질적 격차가 커 치열한 입시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敎育이 끝나는 학생 중 약 95% 정도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고교 졸업자의 약 4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선발의 문제는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입시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시제도는 각 都·道·府·縣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어서 일본의 입시제도에 일반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경향만을 살펴본다.

## II. 入試制度의 概括

### A. 高등학교 入試제도

일본에서 취해지고 있는 고등학교 입시방법은 각각의 학교가 단독적으로 입학생을 뽑는 單獨選拔方式과 학교별로 뽑아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共同選拔方式으로 크게 대별된다.

단독 선발방식은 주로 사립학교에서 채택되고 대부분의 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공동선발 방식이란 數個의 학교를 학군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동일한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군제도를 전제로 한다. 학군제도란 학교의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개의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關連·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학군은 학교수의 多小에 따라 보통 大學群, 中學群, 小學群으로 분류된다. 각 학군에서 실시하는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군제 : 시험은 공동출제하며, 학생에게 1, 2차 지망을 기재하게 하여 합격한 학생 중 성적의 상위 1/3은 제 1 지망교에, 나머지 1/3은 제 2 지망교에 배정하고, 하위 1/3은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배정하는 방법이다.

○ 중학군제 : 특정학교에 대한 지망을 받지 않고, 공동문제에 의해 실시되는 시험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이다.

○ 소학군제 : 1개 학군내에 1개의 인문고등학교와 1개의 실업고등학교를 두어 졸업생 모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로 인원이 증가하거나 신설학교가 생기면 학구수가 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학군제를 縣에 따라 1가지 혹은 2, 3가지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은 중학군제와 대학군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학생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로는 보통 입학시험(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서(調査書)에 기재된 성적이 반영된다. 입학시험은 대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교과에 걸쳐 실시되며, 3개 교과를 치루는 縣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를 실시한다.

### B. 大學入試제도

최근까지 완전히 單獨選拔制였던 입시제도가 1979년부터 국·공립대학교·대학입시센터 關連하에 실시되는 공통 제 1차 학력시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는 전국 都·道·府·縣의 국·공립대학에



서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 도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험으로서 대학입학자격 시험은 아니나, 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국·공립대학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고등학교 과정에 의거하여 국어(1과목), 사회(2과목), 수학(1과목), 과학(2과목) 혹은 기초과학(1과목), 외국어(1과목)의 5교과, 7과목을 보게 된다. 배점은 각 교과 200점으로 1,000점 만점이며, 주로 다지선다형에 의한 객관식 방법으로 출제하고 있다.

각각의 국·공립대학은 독자적으로 2차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공동학력고사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여 입학울 사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독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발자료로는 내신서, 입학시험, 신체검사, 실기, 면접 등의 방법을 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실시하고 있다.

### Ⅲ. 內申制度의 運營方法\*

#### A. 내신서의 내용

내신서의 기재내용은 현에 따라 다르나 보통 교과성적, 특별활동, 행동, 성격, 출결, 표준점수, 건강, 취미, 특기, 진로, 종합의견, 특기사항, 경기수상경력 등이 포함된다. 교과성적은 5단계, 또는 10단계로 각 縣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며, 대부분의 縣의 경우 1,2학년 성적은 그대로, 3학년 성적은 5단계, 또는 10단계로 상대평가하여 기재한다. 입학시험에 직접 반영되는 성적은 단계화된 3학년 성적만이다. 5단계, 또는 10단계의 상대평가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京都府教育委員會는 1974년 초·중학교에서의 5단계 절대평가제 채택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절대평가제도의 전환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교과성적외 내신서 기재사항인 특별활동 상황은 기술식으로, 행동·성격은 3단계 상대평정방법에 의해 기재되고 있다. 행동·성격에 대한 3단계 상대평가방법은 일본 문부성에 의하

#### 5단계

#### 10단계

등 급	비율(%)	등 급	비율(%)
5	7	10	3
		9	4
4	24	8	9
		7	15
3	38	6	19
		5	19
2	24	4	15
		3	9
1	7	2	4
		1	3

여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나 京都에서는 문부성에서 제시한 행동·성격측정 항목이 “사교성이 좋다.”, “행동한다” 등 판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집단 속에서 총체로서의 학생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 행동·성격의 평가는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을 만들려고 한다.” “……한 노력을 한다”는 등으로 항목을 재설정함과 동시에 해당학생을 ○로 평점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京都에서는 표준점수 결과는 그 수치가 고정적·항상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발달, 진로개척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신서에 표준점수결과의 기재를 금하고 있다.

#### B. 내신성적 환산 및 입학사정

내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직접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과성적 뿐이다. 내신성적외 입학시험성적의 반영비는 일반적으로 50:50이며, 내신서에 기재된 5단계 혹은 10단계 평점은 각 縣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발방식에 따라 특정 점수로 환산되어 입시에 반영된다.

특정점수로의 환산은 교과목에 관계없이 2배, 혹은 3배 등 현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배수를 곱해 환산되어 지거나, 입학시험에서 다루어 지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1.2배

\* 본고에서 예시된 내신제도의 운영방법은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만을 들고 있다.

또는 1.5배 등의 부가점수를 주어 환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환산된 점수를 입시성적과 관련시켜 선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는 각각 약 10여 개의 현에서 채택되어 지고 있다.

① **상관방식** : 내신성적과 입학시험성적을 중점으로 놓고, 상관표를 만들어 그 상관관계를 보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동경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② **합계방식** : 내신서의 5(혹은 10) 단계 평점을 입시 성적과 합한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특점단순 합계방식과 단계화 합계방식으로 분류된다.

특점단순합계방식이란 내신서의 5(혹은 10) 단계 평점을 縣이 지정한 바에 따라 배가하여 입시성적과 합한 후 고득점순에 따라 합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京都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계화 합계방식이란 내신서의 5(혹은 10) 단계

入試選拔總合段階表(東京都의 例)

환산내용		1	2	3	4	5	9	7	8	9	10	11	12	13
		입시성적	51	48	45	42	39	36	33	30	27	24	21	18
		50	47	44	41	38	35	32	29	26	23	20	17	이하
		49	46	43	40	37	34	31	28	25	22	19	16	
1	300—280	2①	3①	4③	5③	6⑤	7⑤	8⑦	9⑦	10⑨	11⑨	12①	13①	14③
2	279—260	3②	4①	5①	6③	7③	8⑤	9⑤	10⑦	11⑦	12⑨	13⑨	14①	15①
3	259—240	4②	5②	6①	7①	8③	9③	10⑤	11⑤	12⑦	13⑦	14⑨	15⑨	16①
4	239—220	5④	6②	7②	8①	9①	10③	11③	12⑤	13⑤	14⑦	15⑦	16⑨	17⑨
⋮	⋮													⋮
15	19—0	16⑬	17⑫	18⑪	19⑪	20⑨	21⑥	22⑦	23⑥	24⑤	25④	26③	27②	28①

\* 환산내용은 9개교과 중 국·수·영 3교과는 최고 5점(5단계 평가), 입시를 지지 않는 나머지 6교과는 최고 5점에 1.2배를 가산하여 총 교과목 평점을 합산한 것이다.

\*\* 입시성적은 국·수·영 3교과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합산한 것이다.

\*\*\* 작은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합격하며 같은 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는 등그라미 속의 숫자가 작은 순으로 우선 합격된다.

평점을 10단계로 하고 또한 입시 성적을 10단계로 하여 두 개를 합쳐 상위권에 속하는 순으로 합격시키며, 동점자의 경우는 내신성적과 입시성적 중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어 결정하되,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는 각학교의 권한에 속한다.

③ **순위방식** : 내신성적과 입학성적 각각에 대해 순위를 정하여 두 가지 성적이 모두 일정순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만 합격시키고, 어느 한쪽이 중간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상에 기술된 어느 방식을 취하든 교과성적 이외에 특별활동, 행동, 성격등의 항목이 직접적으로 점수로 환산되어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는 없으며, 단지 동점자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합격여부를 사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뿐이다.

東京과 같은 경우는 내신서에 어떠한 사실에서는 특히 뛰어난 자를 7%선정, 그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1명을 선정해

기재사항 앞에 특 이라고 강조하게 함으로써 동점자 처리시에 우선합격시키고 있다.

#### IV. 結

일본의 입시제도는 각 지방당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독선발제로 인한 학교간의 격차유발, 공동선발에 의한 학력수준의 저하, 내신성적의 상대평가에 의한 교육목적 저해, 내신평점점수의 과학적 근거없는 환산점수화, 교과성적의 기타사항의 내신반영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인 해결점을 시사한다고는 기대하기 힘들나 입시제도의 개혁 특히 내신제 반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저질르는 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 英國의 入試制度

金 京 淑

(本院 研究員)

## I. 序

英國의 敎育制度를 보면 5세에 幼兒學校(Infant Schools), 또는 初級學校(First Schools)에 입학하여 5年間の 初等敎育을 받고 초등敎育이 끝나는 11세에 中等學校에 入學하여 5年間の 中等敎育을 받는다. 中等學校는 과거 오랜동안 11+시험(Eleven-Plus Examination) 결과에 따라 우열을 定해 입학되었으나, 수년 전부터 11+시험의 早期選別에 대한 批判이 높아지면서 이 시험제도는 차츰 사라져 가고 있고, 5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選別작업이 없는 11年間の 의무敎育을 받고 있다. 그리고 中等學校 5학년 수준(Fifth Form)이 끝나는 16세에 CSE(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와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수준 시험이 있고, GCE 'O'수준 합격자는 6학년 수준(sixth form)에 해당하는 敎育機關에서 1 내지 2年間の 高等敎育을 위한 準備敎育을 받고 18세時에 GCE 'A'수준에 合格한 後 大學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의 學校階梯를 볼 때 英國에서의 본격적인 입시현황은 中等學校 後期の 대학입시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本 論考에서는 英國入試制度의 現況을 파악함으로써 現在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入試問題에 대한 示唆點을 찾아 보고자 한다.

## II. 中等學校 入試制度

오랜동안 11+시험에 의해 시험성적에 따라 文

法學校(Grammer School), 技術學校(Technical school), 現代學校(Modern School)의 순서로 진 학했다. 그런데 이 學校體系는 選拔기준인 11+ 시험이 지나는 優劣選拔과 코스 早期分化的 결합 때문에 批判이 일다가 1966年 노동당 정권에 의해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제도가 채택되어 70年代 後半에는 80%가 넘는 中等학교가 綜合학교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能力이나 適性에 관계없이 16세까지 義務敎育을 받는다.

## III. 大學入試制度

英國에서도 1960年 이후 현재까지 高等敎育인구가 3배나 확장되었다. 50만의 全日制 學生과 샌드위치學生이 있고 25만의 定時制 學生들이 현재 다양한 학교와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高等敎育인구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綜合大學의 새로운 설립, 大學內 單科大學數의 증가, 30개의 綜合기술대학 설립,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설비를 확장함으로써 해결해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入學시험에 의한 選拔은 불가피하다.

大學에 入學하기 위해서는 中等학교수료자격 시험인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또는 CSE(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에 합격하여야 한다. GCE는 다시 GCE 'O(Ordinarg)' 수준과 'A(Advanced)' 수준으로 나뉘며, 대학측에서는 대개 최저 'A'수준의 2과목을 합한 모두 6과목의 합격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과목별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5次까지 志望하여 경쟁을 통해서 입학한다. 그러므로 대학별로 별도의 입학시험은 없고 다만 대학에 따라서 학생의 GCE성적과 CSE성적 및 교장의 內申書類를 검토하여 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시험을 치는 대학도 있다. 이 때 대학입학중앙협의회(The Universities Central Council on Admissions: UCCLA)가 있어 大學과 入學志願者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여 入學願書의 수리, 學校長의 內申書 接受, 지원대학에 대한 원서의 送達, 合格의 통지 등의 諸 업무를 처리해 준다. UCCLA가 권장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자가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들 대학과는 달리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GCE外에도 대학별로 入學試驗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평의회(Schools Council)에 의해 GCE 'O'수준과 CSE 대신에 16세 때에 통일적 시험을 실시하자는 것과 16세 넘어 학교에 머물면서 GCE 'A'수준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EE(Certificate of Extended Education)가 제안되고 있다.

#### IV. GCE와 CSE

GCE 'O' 수준이나 CSE는 5年間의 中等學校 과정을 완성한 16세의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GCE 'A'수준은 2年餘의 공부를 더 마친 18세 때에 주어진다. 중등학교 졸업時 上位 20%의 學生은 GCE 'O'수준에 응시하고 그 밑 60%의 學生이 CSE에 응시한다.

GCE는 원래 고등교육기관의 質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서 시행되었고 8개 시험위원회에 의해 관할되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는 데 비해 CSE는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1965년에 채택된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응시에도 사용되는 시험으로 14개 지역시험위원회에서 관할되며 거주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GCE, CSE는 모두 學科目別 시험으로서 入學 하려는 大學이나 就業하려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목을 선정하여 시험을 치른다. 예를 들면

各大學이 요구하는 입학조건에 ① 2과목의 'A' 수준 시험과 3과목의 'O'수준 시험에 합격할 것 ② 3과목의 'A'수준 시험에 합격하고 또 1과목의 'O'수준 시험에 합격할 것 등이 있다. 한편의 GCE 시험에서 'O'수준은 9과목 'A'수준은 3이나 4과목에 지원할 수 있다. 과목별 합격여부 및 성취수준이 등급으로 평가되는데, 등급에는 GCE 'A'수준은 A,B,C,D,E의 5등급이고 'O'수준은 A,B,C의 3등급, CSE는 1, 2, 3, 4, 5의 5등급이다. GCE와 CSE는 GCE 'O'수준의 세번째 등급 'C'와 CSE의 첫째 등급 1과 같은 합격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다. GCE와 CSE 시험사이의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학교평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GCE 'A'수준의 시험에서 평가등급을 A,B,C로 받은 사람은 특별 答안지를 作成하여 '우수' 또는 '양호'라는 보충적인 등급을 첨가토록 할 수도 있다.

GCE시험의 'O'수준과 'A'수준 사이에 1~2年間的 Sixth Form(제 6학년급)이 있게 되며 현재 (1978年) Sixth Form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80개를 넘고 있다. Sixth Form에서의 교육은 매우 專門化되어 있어서 수업은 토론이라든가 도서관을 利用한 研究와 Report 作成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대학생활과 적합한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진학을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를 결정한다.

GCE와 CSE의 출제방식은 논문식과 객관식이 배합되어 있으며 시험의 횟수는 GCE 'O' 수준과 'A'수준 모두 연 3回 실시하고, GCE, CSE시험은 모두 자격시험으로서 평생 有效하다.

GCE와 CSE의 志望率을 보면 1976年 70만 7천 명이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59만 7천 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약 84%의 應試率을 보였고 그中 GCE의 응시율은 약 20%였으며 이들 시험의 合格率은 50~60%였다.

#### V. 영국 대학입시제도의 시사

英國의 大學入試制度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 주는 示唆點을 살펴 본다면 아래와 같이 要約해 볼 수 있겠다. (35페이지에 계속)

# 學制評價 準據模型 開發과 現行 學制的 分析\*

鄭 英 愛

(本院 研究員)

## I. 序論

學校教育制度는 教育發展의 척도이며 社會發展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重要性和 適用範圍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한 國家社會에서 憲法에 비유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狀況에 가장 적합한 學校教育制度를 마련하므로써 個人的 自我實現에 이바지하고 國家發展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學校教育制度는 建國 이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 原理를 기반으로 수립된 뒤 部分的인 改正을 거쳐 6—3—3—4制의 基幹學制와 傍系學制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教育內·外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現行 學制의 妥當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教育의 폭발적인 量的 擴大에 따른 質的 再檢討에 대한 요청, 教育에 대한 社會的 要求와 期待의 變化로 인한 機會均等의 必要性 증대, 社會의 모든 領域에 걸친 加速度的 變化에 따른 教育思潮, 內容, 方法 및 經營方式의 變化, 教育의 生産性 高揚과 投資效果의 極大化에 대한 國家社會의 現實의 要求, 制度의 硬直化 現象에 따른 學校教育制度의 문제 및 學制 수립 당시 外國 學制의 도입으로 인한 現實의 不適合性 등의 理由에서 現時點에서 現行 學制에 대한 多覺的인 再檢討가 要求되고 있다.

그 동안에 教育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가 많이 있어 왔으나 學校級別 研究나 領域別 研究가 대부분이었으며, 더우기 學制를 종합적으로 分析하고 評價할 수 있는 共通的인 準據體制(frame of reference)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學制에 대한 綜合的인 分析 및 이를 위한 準據體制 開發이 實질히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이 研究는 現行 學校制度를 評價하기 위한 準據模型을 開發하고 이에 더하여 現行 學制를 分析하므로써 問題點을 찾아 改善方案을 탐색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하여 (1) 現行 學校制度의 變遷 및 定着過程의 分析 (2) 學制評價를 위한 準據模型의 開發 (3) 準據模型에 대한 現行 學制의 構造와 運營分析 (4) 外國 學制의 構造와 運營 分析을 통한 우리나라 學制의 比較를 研究內容으로 하고 있다.

研究方法은 (1) 文獻研究를 통하여, 現行 學制의 定着過程, 學制評價의 準據模型 開發을 위한 接近方法, 展開過程 및 發展指標에 관한 研究, 現行 學制의 構造와 運營의 分析, 그리고 現行 學制의 改善方案을 탐색하였으며, (2) 세미나 및 協議會를 개최하여 韓國教育의 構造와 運營上의 問題分析, 學制研究의 接近方法, 準據模型의 構造, 現行 學制의 問題點, 學校制度의 發展方向을 모색하였고, (3) 準據模型開發에서 Delphi技法을 活用하여 教育指標를 추출하였다.

\* 本 研究論文은 研究報告 101集을 要約한 것이다.

## II. 學制評價의 背景 및

### 準據模型의 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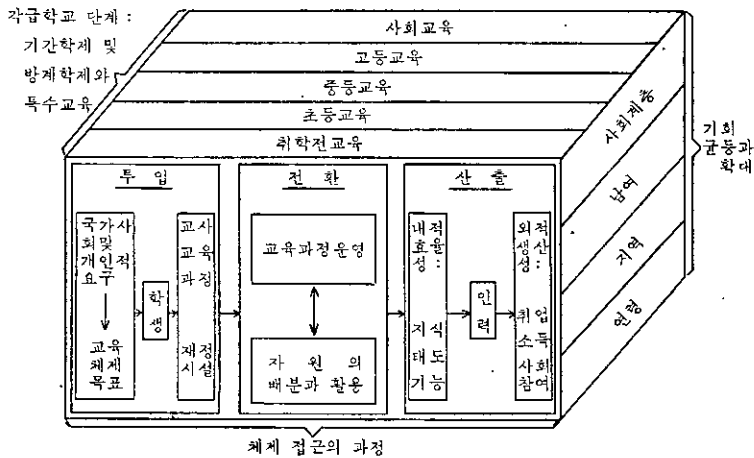
#### 1. 學制評價의 背景

學制評價研究의 背景으로서 學制의 法規의 側面에서 學制의 構造와 運營의 基本的인 事項을 살펴보았으며, 美軍政下의 學制 수립 이후, 學制의 變遷過程을 고찰하였다. 또한 學制의 發展課題를 (1), 國家社會發展에 따른 教育制度의 擴大와 發展, (2), 基礎(義務) 教育의 充實, (3), 中等教育의 普編化 및 多樣化, (4), 급속한 高等教育機會의 擴大에 따른 高等教育의 再編成 (5), 平生教育 側面에서 學校外教育의 制度化로 설정하여 學制研究의 基本 方向으로 하였다.

#### 2. 準據模型의 開發

學制 妥當性을 評價하기 위한 準據模型은 學校制度의 段階的, 領域的, 比較教育學의 研究의 限界點을 극복하여 現행 學校制度를 分析하기 위한 목적에서 體制分析理論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學制評價의 準據模型은 3次元의 構造로서 第1次元은 各級學校 段階(就學前, 初等, 中等, 高等, 社會教育)로 구성되었으며 第2次元은 體制接近 過程으로서 投入, 轉換, 產出의 세 變因으로 나누었고, 第3次元은 教育對象의 속성으로서 社會階層別, 性別, 地域別, 年齡別로 나누었으며 이는 <그림-1>과 같다.

그 중 第2次元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다. 소분류인 140개의 教育指標를 중심으로 學校教育制度가 分析되었으며, 4가지 學校教育制度의 目標에 비추어 이에 대한 妥當性이 評價되었다.



<그림-1>

學制妥當性 검토를 위한 準據模型

<표>

學制評價의 準據模型

체제 과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지표)
투입	I. 교육조건준비성	I-1 인적자원의 수준	29
		-2 물적자원의 규모	6
		-3 재정자원의 규모	8
		-4 교육과정의 투입정도	9
轉換	II.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8
		-2 교육방법의 효율성	7
		-3 교육평가의 합리성	4
	III. 교육자원 활용의 효율성	-1 인적자원 운용의 효율성	25
-2 물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9	
-3 재정자원 활용의 효율성		6	
-4 행정제도의 능률성		8	
產出	IV. 교육의 생산성	-1 교육의 내적 효율성	7
		-2 인적수급의 충족도	3
		-3 교육의 외적 효율성	11

또한 教育指標 중 가능한 한 범위에서 외국의 GNP수준의 上·中·下別 30個國과 상호 비교하였다.

### Ⅲ. 現行 學制 分析 및 外國과의 比較

#### 1. 現行 學制의 分析

##### 1) 教育條件의 準備性

첫째, 人的 資源의 水準을 分析한 結果, 國民學校는 1970년 이후 適齡人口에 대한 就學率이 100%를 상회하여 義務教育의 完成段階에 있으며 中學校도 無試驗進學 이후 87%의 취학율을 보이므로 一般化되어 가고 있고 男女學生 간에도 55:45의 비율로 機會均等이 이루어지고 있다. 高等學校의 就學率도 계속 증가하여 1978년에는 51%의 수준이며 男女學生 比도 60:40으로 均等化되어 가고 있다. 大學校는 高校卒業者의 33%, 적령인구의 11%만이 進學하므로써, 機會가 제한되어 있으며 男女間의 教育機會의 격차도 크다. 또한 學生의 大都市 集中이 두드러진 현상이며 敎員의 質의 水準은 다소 향상되므로써 平準化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物的 資源의 規模에 있어서 學校數 증가율이 學生數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므로 過大規模의 學校, 過密學級이 發生하였으며 보통교실, 강당 및 체육관이나 도서관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고 老朽率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셋째, 財政資源의 規模에서 經濟成長에 따라 教育에 대한 投資가 一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政府豫算 中文敎豫算이 차지하는 비율이 外國과 비교하여 대단히 낮으며 1972년의 8.3조치로 인하여 地方教育財政이 대단히 부족한 水準에 있으며 教育費 중 學父母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教育課程의 投入에서 上·下位 教育目標間의 位階性 부족 및 地域, 性에 따른 多樣性 부족과 敎科內容에 있어서 地域, 性, 社會階層에 따른 生活經驗 다양성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는

점, 敎科目別 敎科書 檢定類型의 國定化 증대에 따른 획일화의 문제점, 敎授—學習資料의 낮은 확보율 및 種類의 制限性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2) 教育課程 運營의 適切性

첫째, 教育課程 運營의 適合性에서 우리나라의 敎科時間 배당이 初·中·高 모두 外國에 비하여 많은 가운데 國語, 算數, 自然, 社會 등의 基礎敎科 時間배정 비율은 적은 편이다. 教育課程 改正週期가 初·中·高 모두 같으므로 各級學校 나름대로의 改正 必要性에 따라 教育課程이 改正되지 못하는 폐쇄성이 있으며 學校教育計劃이나 敎科課程 運營 時 學校單位別, 敎科 담당교사별로 自律性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學生들의 生活指導는 學校當局의 이해부족, 財政不足, 制度的 지원부족에서 實踐度가 매우 낮다는 점이 教育課程 運營의 適合性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둘째, 教育方法의 効率性에서 敎授—學習資料의 부족 및 낮은 활용률로 인하여 敎科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敎師의 講義 위주의 수업형태는 教育方法의 効率性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教育評價의 合理性에서 全國 水準의 學力評價 道具 및 진담 主管機關이 없으며, 教育研究機關에서의 간헐적으로 실시되어 온 전국 學力評價로는 學校教育 效果를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기에 문제가 많다. 또한 評價問項 및 評價範圍의 制限性도 高等精神能力 함양 및 全人教育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므로써 教育評價의 合理性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3) 教育資源 活用の 効率性

첫째, 人的 資源 運用의 効率性에서 初等·中等 教育水準에서 모두 과밀한 學級當 學生數 및 敎員 當 學生數, 그리고 敎員의 주당 수업시간 및 집무의 과다로 인하여 人的 資源 運用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物的 資源活用の 効率性에서 國民學校와 人文高를 제외한 各級 學校의 學生 1人當 校舍面積의 감소 경향 및 物的 資源의 배분 활용의 地域間 격차, 公·私立間의 격차 등은 物的 資源活用の 効率性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財政資源 活用の 効率性에서 各級學校

의 경우 學生 1人當 公教育費, 장학금 수혜자 비율 및 평균 수혜액, 公教育費 중 인건비 비율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財政資源 活用の 效率性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公教育費 배분 비율에서 國民學校, 中學校에 투자 비율이 감소하고 高等學校, 大學校에 투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고, 大都市, 農村間 公私立間 配分の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教育 財政資源活用の 自律性 및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1975년에 24學級 미만의 국민학교에 都給 經費制度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네째, 行政制度의 能率性에서 意思決定權限이 上部 관료조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장학방향이 변화되었다는 教育政策의 일관성 부족 현상은 行政制度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4) 教育의 生産性

첫째, 教育의 內的 效率性에서 國民學校 95% 中學校 95%, 人文高 92%, 實業高 93%의 卒業率을 나타내므로써 중도탈락율은 5~8% 수준이며, 年度別로 볼 때 중도 탈락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性別로 보면 國民學校의 경우 1978年度 수준에서 男學生의 졸업율이 높으나 中·高等學校에서는 男學生 보다 女學生의 卒業率이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公·私立別로 보면 私立 學校學生의 卒業率이 國·公立 學校 學生의 졸업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 있다. 學業成就度 水準으로 教育의 內的 效率性을 보면 教育研究機關에서 실시한 全國 學力評價 結果, 地域間의 學力 格차가 매우 크며, 性別의 差도 다소 있고, 敎科目 中 특히 算數와 音樂의 學業成就도가 全體的으로 낮으며 各 敎科目 內에서는 高等精神能力을 測定하는 문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써 內的 效率性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人力需給의 充足度에서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就業率은 進學率이 증가함에 따라 4~6% 정도(1978년도 수준)로 적은 수준이며, 人文高는 11%, 實業高는 59%, 大學(校)은 63% 수준이며, 專攻과 就業과의 합치비율은 1978년에 實業高는 89%, 大學은 82%로 높은 수준이고, 人力需給面에서 大學校는 高級人力需의 97%를 공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째, 教育의 外的 效用性에서 國民의 教育水準은 크게 향상되어 1966년에 國民學校 教育을 받은 국민이 54%였으나 1975년에는 75%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중학교 교육 이수자가 20%, 高等學校 교육 이수자가 10%씩 증가하였다. 따라서 無學者 비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中等教育人口는 10年 동안 2배, 高等教育人口도 10年 동안 2배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맹율도 1945년의 78% 수준에서 1970년에 1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殘餘額 推定方式에 의해 產出된 國家經濟發展에의 寄與度로 본 教育의 外的 效用性은 노동시장에서 必要이상의 學力을 要求,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의 과소, 學校段階間 教育費配分の 불균형 등에 의해 日本이나 美國의 水準 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다. 學力別 임금격차로 볼 때는 1978年 임금수준으로 비교하여 國卒을 100으로 했을 때 中卒 113, 高卒 173, 專門大卒 256, 大卒 399로 學歷別 所得水準의 格차가 크다고 하겠다. 教育投資의 收益率에서는 20%의 物的 資本의 收益率 보다 적은 15% 정도의 教育投資收益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外國에 비해 初等, 中等, 高等教育 모두 教育投資收益率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外國의 學校教育制度와의 比較

外國 教育制度의 構造와 運營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指標 5개에 대한 比較단을 요약 정리하였다.

比較國家는 GNP 水準의 上·中·下에서 각각 10個國 씩 선정되었으나 관계자료가 부족한 2개국을 제외하고 28個國의 教育制度의 構造와 運營이 分析되었으며 28개국 중 우리나라의 GNP는 2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 1) 各國의 教育構造

教育制度에서 분류되는 水準, 段階 및 期間을 教育構造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初等, 中等, 高等教育의 3단계로 분류되며 점차 就業前 教育도 基幹學制로 포함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就業前教育은 3~4歲에서 시작되며 GNP



76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66-70														
61-65										한 국				
56-60														
51-55								아프카 니스탄		비에트 남				
46-50							티베트	멕시코						
41-4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36-40							이집트		자이레					
31-35						스페인 리비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26-30				비 이 국 안	보라질 우루과이 인도									
21-25				프랑스 가나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16-20			소련	이스라엘 네마르크										
11-15														
6-10														
1-5														

〈그림-2〉 名圖의 國民學校 教師 1人當 學生數

중앙 사선은 1965년과 1975년이 같은 수준이며, 중앙사선 오른쪽 칸은 늘어난 경향, 왼쪽 사선은 줄어든 경향을 나타냄. 이후의 그림에서도 같음.

수준이 높을수록 就業前 教育의 入學年齡 및 期間이 길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義務教育 年限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9年이며, GNP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9年~12年으로 의무교육 연한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就業前 教育의 擴大 및 義務教育 年限 연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2) 就學率

就學率은 量的인 教育機會 擴大를 나타내는 指標로서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初等教育의 就學率은 1975年 수준에서 100%를 상회하므로서 선진국 대열인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中等教育의 就學率은 1975년에 63%로서 28個國中,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高等教育의 就學率은 1975년에 7%로서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水準이라고 할 수 있다.

### 3) 敎員 1人當 學生數

教育制度의 運營中, 教育의 質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敎員 對 學生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敎員 1人當 學生數에 있어서 外國과 比較한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림-2〉, 〈그림-3〉, 〈그림-4〉\*와 같다.

1975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1965							
36-40							
31-35						말레이시아	한 국
26-30					이집트		
21-25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아프카니스 탄	말레이시아			
16-20	프랑스		캐나다				
11-15		이집트 보라질	멕시코				
5-10	스페인						

〈그림-3〉 中等教育 敎員 1人當 學生數

\* 현저한 현상만을 요약

1965 \ 1975	5-10	11-15	16-20	21-25
21-25				필리핀 이집트
16-20			캐나다 스페인	터키
11-15	헝가리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이	미국 베어마	
5-10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타일 아프리카 나스탄		

<그림-4> 高等教育의 教師 1人當 學生數

<그림-2>, <그림-3>, <그림-4>로 볼 때, 우리나라의 教師 1人當 學生數는 初等, 中等, 高等 모두, 外國과 비교하여 最下位 水準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조건이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學校制度의 教育力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많은 教育問題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教育發展을 위해 最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 4) 公教育費 水準

GNP 對 公教育費 비율은 學校教育의 量과 質의 水準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척도다.

外國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GNP 對 公教育費 比率는 <그림-5>와 같다.

外國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GNP 對 公教育

1965 \ 1975	1-1.9	2-2.9	3-3.9	4-4.9	5-5.9	6-6.9	7-7.9	8-8.9
8-8.9								
7-7.9							소련	
6-6.9						이스라엘	캐나다 스웨덴	
5-5.9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영국		덴마크
4-4.9					프랑스 일본 케냐 말레이시아 이집트			
3-3.9			이란	독일	터키 자이레	오스트레 일리아		
2-2.9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인도	브라질 타일 베어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1-1.9	스페인							

<그림-5> GNP 對 公教育費 比率 (%)

費 비율은 1965년에 경우 최하위였으나 1975년에 와서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外國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또한 政府豫算 對 文教豫算 比率이 14.3%로서 外國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5) 公教育費 配分比率

外國과 비교하여 본 우리나라의 各級學校 段

階에 따른 公教育費配分比率의 특징은 初等教育에 대한 配分比率이 높은 반면, 中等, 高等教育에 대한 비율은 낮고, 特殊教育, 成人教育에 대한 配分이 거의 實現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IV. 提言

學制評價 準據模型 關發 및 이에 따른 現行

學制의 分析 結果,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敎育制度 내지는 學校制度의 社會的 適合性 및 妥當性에 대한 評價를 綜合的이고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既存 研究機關에서 지속적으로 學制의 成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結果는 政府의 各種計劃(例: 經濟計劃, 敎育計劃)의 期間에 맞추어 每 5年마다 發展指向的으로 文教政策樹立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學制의 成果와 社會的 妥當性 및 適合性을 評價하는 理論的 模型을 설정함에 있어서

本研究에서 주로 다룬 量的 指標 뿐만이 아니라 質的 指標도 광범위하게 보다 體系的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本研究의 制限性으로 인하여 學制評價를 위한 準據模型 開發 및 現行 學制의 分析만을 다루었으나 社會發展 추세에 비추어 敎育機會 擴大가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就學前 敎育의 機會擴大, 基礎敎育의 充實을 위한 初等敎育과 前期 中等敎育을 합한 9年의 義務敎育化, 後期 中等敎育의 普編化, 高等敎育의 再編成 및 社會敎育의 制度化 등의 方向에 대한 政策的 課題가 요청된다. □



(28페이지에서)

① GCE나 CSE 모두 科目別 合格制이고 출제 방식이 論文型 등의 主觀式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學生들은 暗記爲主의 단편적인 지식의 학습보다는 구조적 지식에 입각한 꾸준하고 깊이 있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식 문항만으로 출제하는 우리 나라 예비고사 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② GCE 'O'수준과 'A'수준 사이에 제 6학년(Sixth Form)이 있어 대학교육의 준비단계로서,

수업방법을 自律에 입각하여 스스로 공부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適性이 大學의 학문추구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學生들로 하여금 人生全體에서의 大學問題를 생각해 보게 하고 學位取得만이 人生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며 自身을 충분히 파악하고 進學이나, 就業이나의 進路를 결정하게 한다. 이것은 主體的 選擇人으로서의 당연한 行動이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進路결정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㉞

# 成年式으로서의 教育

— R.S. Peters 教育理論 —

李 烘 雨

(서울大學校教授 教博)

① “教育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과 “敎科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동일한 질문이 되려고 하면 “教育을 하는 것”이 “敎科를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이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즉, 敎育은 “敎科를 가르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광범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敎科를 가르치는 것은 敎育에 속하는 활동 전체 중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敎育은 學校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들어오던 말이다. “敎室의 네벽을 허물어 뜨린다”는 표현은 한 때 敎育을 올바른 모습으로 가다듬는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상 요새는 敎科의 중요성에 대한懷疑가 훨씬 더 깊어져서 “敎室에서 하는 공부” 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敎育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와 같이 敎育이라는 말이 거의 온갖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형편에서는 “敎育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과 “敎科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敎育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품기는 장엄한 의미에 비기면 “敎科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은 어이없이 사소한 것이 되고 마는 것 같다.

요새와는 형편이 다르지만, 옛날에도 “敎科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없었다. 예컨대 李朝時代의 사람들이,

아마 李朝後期の 實學者들을 예외로 치면, 四書五經을 왜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을 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四書五經을 공부하는 것은 소수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四書五經은 소수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한, 그것은 社會的地位를 나타내는 表札로 간주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敎育內容으로서의 四書五經의 가치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것이 社會的 表札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과, 둘째로 종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는 다른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四書五經에 대하여 代案의인 敎育內容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두 가지 條件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의 歷史的 事實로서, 李朝時代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1850년대에 허버트 스펜서가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있는 지식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것은 이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1)</sup> 스펜서는 그것을 교육에 관한 “질문 중의 질문”이라고 말하였다. 스펜서에 의하면—스펜서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만—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사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知識이 가치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삶의 어떤 부분에선가 소용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즉, “몸을 돌보는 데에, 마음을 돌보는 데에,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가족

을 저느리고 자녀를 기르는 데에, 젊음은 시민이 되는 데에, 자연이 베푸는 행복의 원천을 활용하는 데에—한 마디로 완전한 삶을 누리는 데에—소용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스펜서가 보기에 종래 회랍어와 라틴어의 古典은 “實用的인”(useful) 내용이 아니라 “裝飾的인”(ornamental) 내용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福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讚揚”을 얻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였다.

만약 누군가가 스펜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敎科의 가치를 세밀히 저울질해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實用的인”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裝飾的인” 내용이 많이 보일 것이다. 아니, 스펜서가 實用的인 내용의 전형적인 보기라고 생각한 “科學”까지 포함하여 소위 “主知敎科”라는 것은 대부분이 裝飾的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敎科를 가르치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삶의 어떤 부분에 소용이 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敎科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분히 좁은 의미에서의 “實用性”에 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상 敎育內容을 實用的인 것과 裝飾的인 것(즉, 實用的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敎科를 대수롭게 생각하건 안하건 간에 이때까지 學校에서는 스펜서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裝飾的인 것”에 속하는 敎科를 가르쳐 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다. 만약 이 사실을 중요시한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說明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의 思考方式에 의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나는 허버트 스펜서와 같이 그러한 裝飾的인 敎科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大衆의 意見에 附和雷同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다시 말하면 그런 敎科를 배우면 사회에

서 “좋은 敎育”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敎科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實用性에 있는 한, 그런 敎科는 敎科로서 가치가 없거나 덜 중요한 것이 된다. 여기에 비하여 또 하나의 설명은 敎科 중에 “당장” 또는 “직접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敎科는 “간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유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裝飾的인 敎科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實用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간접적으로” 유용한 敎科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敎科가 유용한 것과 동일한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위의 첫째 설명에서 말하는 “裝飾的인” 敎科, 또는 둘째 설명에서 말하는 “간접적으로 유용한” 敎科—오늘날 소위 “主知敎科”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대부분의 敎科—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립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의 어느 것과도 달라야 한다. R.S.피터즈의 敎育理論<sup>2)</sup>은 敎科의 가치에 대하여 제3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② 敎科의 가치에 대한 피터즈의 설명방식은 한 마디로 말하여, 敎科(즉, 敎科를 이루고 있는 概念體系)의 “論理的 假定”을 밝히는 것(argument by presupposition)이다. 다시 말하면 敎科에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論理的 假定”으로 들어 있으며, 敎科를 이루고 있는 概念體系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論理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論理的으로”라는 말은 “論理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論理的 假定”이라는 것은, 예컨대 “金氏의 아들은 천재다”라는 말에 대하여 “金氏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말이 論理的 假定이 된다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假定되었어야 할 말을 가리키며, 이 論理的 假定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말은 意味를 가질 수 없다. 예컨대 “金氏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論理的 假定을 받

아들이지 않고는 “金氏의 아들은 천재다”라는 말이 意味를 가질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敎科의 價値가 敎科 속에 論理的 假定으로 들어 있다는 말은 敎科를 이루고 있는 概念體系를 활용하는 행위(즉, 概念體系를 써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그 概念體系가 지적하는 현상을 파악하는 행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論理的 假定”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요. 마찬가지로 따져서 敎科를 이루고 있는 概念體系를 활용하면서 그 論理的 假定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論理的 矛盾”을 저지른다는 뜻이다.

이러한 설명은 일견 매우 난잡하고 抽象的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사실상 그것은 敎科란 무엇이든 그것이 어찌서 敎科로서 가르쳐 지게 되었는가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私學的知識이 어찌서 敎科의 한 부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확인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기체의 팽창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현상들을 當面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當面”한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當面”한다는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컨대 불 가까이 고무공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라면, 그들은 그 현상을 “當面”한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 현상을 “當面”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파묻혀서” 그 “현상과 한 덩어리가 되어” 살고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그 현상이 說明되거나 把握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을 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군가 부피의 팽창에 관한 法則을 發見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이다. 이 “누군가”는 科學的 現象의 意味를 발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科學者들이다. 科學者들은 각각 그 이전의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科學的 說明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現象들을 발견하고 그 現象들에 대하여 새로운 意味를 부여한다. 科學者들의 업적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던 현상, 따라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현상(예컨대, 불 가까이 있는 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研究結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人類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 敎科 (및 敎科를 배우는 것)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한 개인에게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거의 精確한 並列關係를 보여 준다. 예컨대 아이가 찬데 있던 공을 따뜻한 방에서 가지고 놀 경우에 그 아이가 아까보다 공이 더 팽팽해졌다는 것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공은 아까보다는 더 잘 튀고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 더 좋아졌을 것이다. 아이가 그 현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려면 “기체”, “온도”, “비례” 등의 概念(반드시 그러한 用語는 아니라 하더라도)을 알아야 하며, 그 현상은 그러한 概念에 의해서만 비로소 意味있게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기체의 부피에 관한 法則이 발견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科學者들로부터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체”, “온도”, 그리고 “기체와 온도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공은 따뜻한 곳에 있으면 부풀어 오른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이 지적하는 現象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科學 뿐만 아니라 文學, 歷史, 數學, 心理學 등 여러 學問으로 概念體系가 分化되어 있는 文明社會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言語—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敎育받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言語—는 인류가 오랜 기간을 두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립해온 그러한 “分化된 概念體系”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文明社會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概念體系를 써서 각각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앞의 설명에 示唆된 바와 같이 인류 역사상 學問的 概念體系가 정립되지 않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판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사회,

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상을 파악하는 概念的 手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상이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앞에서 쓴 用語를 다시 쓰면, 그들에게 있어서 森羅萬象은 “對面”의 對象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둘러 싸고 있는 “容器”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비유컨대 그들은 어린아이나 바보와 같은 상태에서 살았다고 보아도 좋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概念體系는 世界에 관한 우리의 知覺 전체를 變形시킨다. 그 知覺 중에는 自然 現象이나 人間 現象, 歷史, 數와 論理뿐만 아니라, 스펜서가 말한 “完全한 삶”에 관한 知覺도 포함된다. 스펜서 식으로 敎育內容이 “完全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 미리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內容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概念體系에 의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규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概念體系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分化된 概念體系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게 규정될 것이다. 스펜서 式으로 敎育이 “實用的”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概念體系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이한 “삶의 形式”을 이루고 있다. 이 “삶의 형식”은 인류가 概念體系를 정립해 온 것과 때를 같이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확립해 온 것이며, 오늘날 文明된 社會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삶의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삶의 형식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생각,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등이 論理的 假定으로 들어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言語가 누구 한 사람에게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우리의 삶의 形式도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共同的의 것이

며, 현대 社會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그 삶의 形式에 참여하면서 그것에 들어 있는 論理的 假定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 論理的 假定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 論理的 假定을 철저히하게 도외시하면 우리가 사는 社會는 바로 原始人의 社會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敎育, 즉 敎科를 가르치는 일은 바로 그 文明된 “삶의 形式”을 받아들여도록 이끄는 일종의 “成年式(initiation)”이다.

③ 듀이는, 敎育은 개인이 社會 活動에 參與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함께 敎育은 그 社會를 특징짓는 삶의 質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띤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sup>3)</sup> 이 점에서 피터즈의 견해는 듀이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터즈의 理論에서는 社會에서 쓰이고 있는 公的 言語에 담긴 公的 假定—즉, 合理性의 假定—에 사람들을 入門시키는 過程으로 敎育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보면 피터즈의 理論은 듀이 理論에서 말하는 “社會에의 參與”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욱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듀이와 피터즈의 敎育理論에는 사실상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sup>4)</sup> 그것은 “手段的 價値”와 “內在的 價値”의 차이라는 말로 가장 잘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듀이에 있어서 敎育(또는 社會活動에의 參與)은 모종의 外的 結果(예컨대 “문제해결”)를 가져 오기 위한 “手段”으로 가치를 가지며 敎育의 價値는 그 外的 結果의 가치에 의존한다. 敎育의 “有用性” 내지 “實用性”이라는 개념은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피터즈에 있어서 敎育의 價値는 敎科에 論理的 假定으로 들어 있다. 이 경우에 敎育의 價値를 보이기 위해서는 敎育이 “문제해결”에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 아니라 敎育을 통하여 傳達되는 敎科의 意味를 “論理的으로” 分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敎育의 價値는 敎科에 “內在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敎育學의 “파라다임의 轉換”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차이이다.

물론, 敎科를 배운 결과로 그것이 나타내는 “삶의 形式”에 入門된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生活問題를 해결한다는 말도 포함될 것이다. 만약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학을 “잘” 가르치면서 敎育이 유능한 생활인을 기른다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별로 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말은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빛을 던져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를 순전히 유능한 생활인을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수학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심중판구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에는 유능한 생활인과 관련이 멀거나 전혀 없는 내용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참 고 문 헌

- 1) Herbert Spencer, *Essays on Education and Others*(London: J.M. Dent & Sons, 1911), Part 1.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 2) Peters의 敎育理論이 가장 體系的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은 R.S Peters, *Ethics and Education*(London: Allen & Unwin, 1966), 李烘雨(譯), 倫理學과 敎育(敎育科學社, 印刷中).
- 3)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New York: Macmillan, 1916), esp. chap. VII
- 4) 韓國翻譯版을 위한 그의 序文에서 Peters는 民主主義와 敎育과의 관계에 관한 그의 견해가 Dewey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52페이지에서)

표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참고문헌

- 1) Evelyn L. Schurr 1975 *Movement Experiences for Children*, 2rd ed., Prentice-Hall
- 2) Anna E. Espenschade,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activity to growth*, "Research quarterly Vol. 31, No.2. Pt. II (May. 1960)
- 3) Garden Marphy, *Human Potentialities*, New York, Basic Book, Inc., 1958
- 4) Lawrence, Rarick, "Research evidence on The values of Physical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Vol. 3, No. 3, The Ohio State Uiversity, 1964
- 5) Fred V. Hein and Allan T. Ryan,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Activity to physical health" *Research quarterly*, Vol. 31, No. 2,

pt. II (May 1960)

- 6) Morry Gutteridge, "A child's Experiences in Bodily activity," 46th, yearbook, part II 1947
- 7) Robert T.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1953.
- 8) Harris on Clarke and Walter Green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el-social measures applied to 10 year Old boys," *Research Quarterly*, Vol. 34, 1963
- 9) Dale Nelson, "Leadership in Sports," *Research quarterly*, Vol. 37, 1966
- 10) P.F. Second and S.M. Jou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1953
- 11) Larry Kewres, "Maslows Hierarchy of needs applied to physical Education and Athletics," *The physical Educator*, Vol. 30, No. 1, 1973



# 記憶過程에서의 個人差\*

趙 夕 姬

(本院 研究員)

無選의으로 배열된 一連의 숫자를 순서대로 想起해내는 能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이 能力과 知能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의문이 있었지만 Binet와 Simon의 知能檢査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能力은 지능檢査도구에서 측정되어 왔다. Brener (1940)는 視覺的으로 제시된 一連의 숫자를 가장 많이 想起해 낸 大學生이 구두로 제시된 숫자 색채, 名命 가능한 기하학적 도형, 單語 聽覺的 또는 視覺的으로 제시된 字彔 등도 역시 가장 많이 想起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러 類型의 자극 재료간의 相互關係數는 .78이었다. MacKenzie(1972)는 숫자와 철자의 記憶範圍檢査가 같은 要因을 측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Jensen(1964, 1971)은 숫자를 사용한 視覺的 제시와 聽覺的 제시 조건간의 相關이 거의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知能이 平均 이상인 成人들은 숫자 想起課題로 측정한 대단히 一般的인 一連의 即時想起能力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근의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課題를 利用하여, 暗誦, 分類, 묶기 등의 記憶戰略 使用에 關한 理解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과 知能이 낮은 成人은 이러한 記憶術의 사용빈도가 보통 성인보다 적으며, 이와 相應하게 숫자 記憶範圍도 좁다는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아동에 있어서의 이 두 사실간의 因果的인 關係는 의문시되고 있다. 暗誦, 分類, 묶기 등이 아동과 성인의 即時

想起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Hunt와 Love(1972)의 보고에서 처럼 막대한 量의 想起는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잘 연습된 記憶術의 적용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實驗들은 이러한 記憶術들이 短期記憶에서의 보통 成人의 個人差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示唆한다.

## 實驗 1 : 暗誦에서의 個人差

실험 1은 暗誦戰略에서의 個人差가 短期記憶에서의 個人差의 기초가 된다는 假說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單一 그룹의 피험자에게 숫자 目錄들을 매초당 숫자 1개와 3개의 速度로, 視覺的인 提示를 하였다. 느린 속도는 Wescheler 成人用 知能檢査(WAIS)의 숫자 記憶範圍에 關한 下位檢査에서의 標準速度와 같게 하고, 빠른 속도는 連續的으로 제시되는 要目들 사이에 暗誦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한 것이다. 빠른 速度는 숫자와 철자 要目的 暗誦速度에 關한 여러 研究들을 검토한 결과, 각 要目間的 提示間隔이 320msec이면, 제시된 要目を 認知하고 그에 해당하는 聽覺부호를 형성할 시간은 있지만 先行 要目を 暗誦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의한 것이다. 이는 모든 피험자들이 빠른 제시 속도에서 要目들을 읽을 수는 있지만 暗誦은 불가능했다고 보고한데서도 確認되었다.

\* Don R. Lyon, Individual Differences in Immediate Serial Recall, Cognitive Psychology. 1980. 1.

. 만약 標準提示速度에서의 個人差가 暗誦戰略에서의 個人差에 기인한다면, 빠른 속도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가 일어나야 한다. 그 하나는, 빠른 속도에서는 暗誦이 不可能하므로, 빠른 조건에서의 被驗者間 變量이 느린 조건에서의 그것에 비해 적을 것이다. 또는, 暗誦 의의 다른 原因이 빠른 속도에서의 被驗者 遂行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의 被驗者 수행의 순의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각 조건에서의 變量의 크기가 類似하고, 두 조건간의 相關關係가 높다면,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解釋은 두 조건에서 個人差를 가져오는 原因이 같으며 그것이 暗誦戰略에서의 個人差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A. 피험자

19세부터 39세에 이르는 有給 Oregon 대학생 19명으로 모두가 正常으로 교정 가능한 視力과 正常의 聽力을 가졌다. 나이와 性別의 變因은 분석되지 않았다.

#### B. 方法

피험자에게 인접한 어느 숫자도 증가, 또는 감소되지 않도록 無選적으로 배열된 10개의 한 자리 숫자를 視覺적으로 제시한다. 提示 후 피험자는 마련된 答紙의 네모칸에 제시되었던 순서에 맞게 첫번째 숫자부터 순서대로 적어 넣는다. 숫자는 순서까지 정확히 想起했을 때만 正답이 되며, 정답수에 따라 報酬가 달리 지급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험자는 피험자가 숫자를 정해진 방법으로 記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장소에 立會하고, 피험자의 지나친 推測은 삼가도록 주의시킨다.

目錄의 提示速度는 두 種類로 느린 경우는 매 초당 1개, 빠른 경우는 3개의 숫자를 제시한다. 두 조건은 하나의 숫자와 점이 차례로 제시되었다가 사라진 후 그 다음의 숫자가 提示될 때까지의 間隔에서만 차이가 난다. 각 피험자는 30분씩 2회에 걸쳐 검사를 받는데, 첫회에서는 느린 속도로부터 빠른 속도의 차례로 10개의 숫자로 된 목록들이 2개씩 각각 提示된다. 두번째 검사에서는 첫회와 反對로 빠른 속도를 먼저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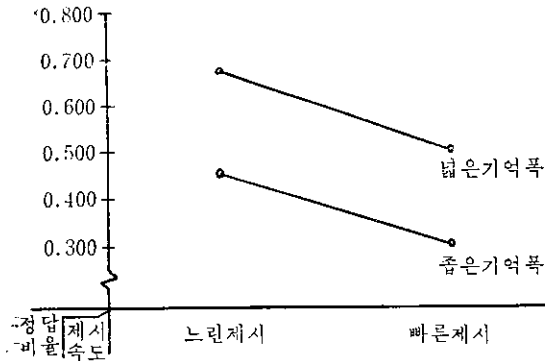
숫자 記憶範圍의 측정은 위의 검사를 마친 후 17명의 피험자에게 WAIS의 下位檢査인 숫자 記憶範圍檢査의 一部를 變型하여 實施하였다. 記憶範圍를 信賴롭게 측정하고자 길이가 서로 다른 10개의 숫자 目錄을 視覺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자는 짧은 目錄으로부터 긴 目錄의 順으로 실시해 나간다. 목록 전체가 정확한 순서로 想起되었을 때만 맞은 것으로 재검하였다. 두개의 目錄에서 連續하여 실패했다라도, 피험자는 가장 긴 목록까지 모두 시도해보도록 요구되었다. 채점은 Brener(1940)의 방식에 따랐다. 피험자는 2회에 걸쳐 검사를 받았는데, 每回마다 길이가 점차 증가되는 5개의 一連의 目錄을 제시하였다. 2회에 걸친 遂行間의 相關度는 .91이었다. 全般적인 記憶範圍測定의 信賴度는 Spearman-Brown 公式에 의하여 .95로 산출되었다.

#### 結果 및 論議

각 被驗者가 빠른 제시와 느린 제시의 두 條件에서 정확히 想起해 낸 比率를 계산하였다. 그 結果, 個人差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빠른 提示速度에서의 정답의 平均 正答率은 의의 있게 減少하였다.

두 提示速度가 같은 種類의 能力을 打診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었던 것처럼, 두 提示速度間의 相關度는 상당히 높았다. 2회間의 相關度를 사용하여 信賴度 公式으로 계산한 결과, 檢査全體의 相關係數는 .95까지 증가되었다. 거기에는 빠른 속도에서의 被驗者間 變量은 감소되지 않았다.

實驗에서 얻어진 資料를 分析하는 또 다른 方法은 標準 숫자 기억 範圍에 따른 피험자의 遂行을 살펴보는 것이다. 피험자를 숫자 記憶範圍에 따라 中央値를 기준으로 하여 範圍가 넓은 그룹과 좁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림-1>은 각 그룹의 피험자들이 각 實驗條件에서 정확히 기억해 낸 平均 比率를 나타낸다. 만약 記憶幅이 넓은 그룹이 越等한 理由가 暗誦에서의 차이에 있다면, 빠른 속도에서는 暗誦이 除去되었으므로, 두 그룹의 점수는 收斂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1>에는 이러한 效果가 나타나있지 않다.



〈그림-1〉 실험 1에서 숫자 기억범위가 넓은 피험자와 좁은 피험자가 정확히想起한 숫자의 평균 비율

暗誦 이외의 다른 記憶戰略들에 있어서도 그것들의 施行에 時間이 要求되어지는 限은 短期 記憶 範圍의 完전에 가까운 加法性和 提示速度의 효과 때문에 이 戰略들을 個人差의 原因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묵기'는 時間 依存的인 過程이다. 만약 個人差가 숫자를 묶는 能力에 기인한다면, 묵기에 使用되어질 時間을 縮短시킴에 따라 個人差의 크기도 縮少될 것이다. 한편 어떤 戰略들은 (예, 分類) 매우 빨리 수행되기 때문에, 每 刺戟 當 330msec이라는 짧은 時間도 이러한 戰略들이 個人差를 가져오도록 하는 충분한 時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실험은 이러한 再符號化 戰略들을 좀 더 直接的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 實驗 2 : 分類와 묵기에서의 個人差

이 실험에서 모든 被驗者는 숫자 目錄에 관하여 똑같은 記憶構造를 갖도록 (숫자들을 셋씩으로 分類하고 각 그룹을 하나의 세자리 숫자로 생각하도록) 要求되었다. 만약 '숫자 想起에서의 個人差가 피험자 간의 再構造化 量과 種類의 差에 기인한다면, 모든 피험자들에게 똑같은 記憶構造를 갖게 함으로써 個人差의 크기를 縮小시킬 수 있을 것이다.

### A. 피험자

실험 1에 참여했던 학생 중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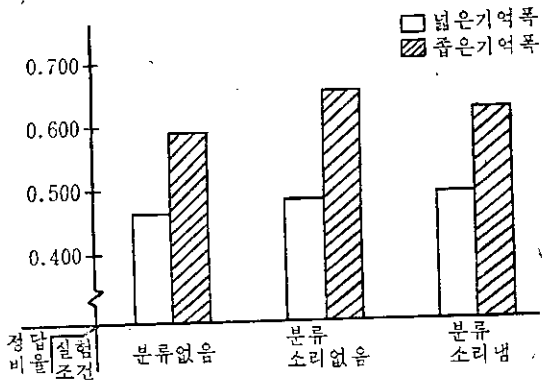
### B. 方法

피험자들은 12개의 숫자를 即時 想起하여 記錄하기 위해 暗記하였다. 3가지의 서로 다른 實驗處置가 주어졌다. 첫째는 숫자를 分類하지 않은 것으로서 12개의 숫자가 1초에 하나씩 250 msec 동안 제시되었다. 둘째는 分類는 하나 소리 내지 않는 것으로서 平均 提示速度는 첫번째 처치와 같다. 다른 점은 세 개의 숫자가 제시된 後마다 刺戟間 間隔을 크게 하여 숫자를 3개씩의 時間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반응지는 검은 線으로 세자리씩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피험자에게는 각 그룹을 하나의 세 자리 숫자로 간주하고 같은 方式으로 기억하도록 要求한다. 셋째는 被驗者가 숫자를 分類하는 同時에, 각 그룹들이 제시되는 사이에 숫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被驗者들이 제대로 理解하고 履行해 나가는지를 確認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였다. 기타의 指示 및 施行은 실험 1에서와 같다.

### C. 結果 및 論議

이 실험 操作은 平均적으로 想起를 向上시키는 데 成功的이었다. 왜냐하면 分類와 묵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的의있게 越等한 遂行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課題에서의 個人差는 이 실험 操作에 의하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處置와 둘째 處置에서의 遂行間의 相關關係가 높고, 分類 그룹에서의 變量減少가 無意味할 정도로 勤少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課題에 대한 수행을 숫자 記憶範圍의 함수로써 분석한 결과 더욱 確實히 나타났다. 소리 낸 그룹과 내지 않은 그룹 모두에 대한 結果가 〈그림-2〉에 나타나 있다. 숫자 記憶範圍가 넓은 그룹과 좁은 그룹의 피험자는 〈그림-1〉에서의 피험자와 같다.

여지로 施行된 分類와 묵기는 두 그룹 사이의 根本的인 遂行差가 분류와 묵기에서의 差異에 의한다는 假說에 따라 期待되는 두 그룹의 收斂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림-2〉는 또한 숫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想起-記錄하는 課題와는 明白히 相互作用하나, 숫자 記憶範圍檢査와는 相互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림-2> 실험 2의 각 처치에서 숫자 기억범위가 넓은 피험자와 좁은 피험자가 정확히 想起한 숫자의 평균 비율

첫째 처치와 둘째 처치간의 相關도가 첫째 처치와 셋째 처치간의 相關도보다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資料는 피험자의 숫자 記憶範圍와 實驗全般에 걸친 遂行간의 相關係數가 .7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얻어진 결론들을 위해서 반드시 完全한 相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相關도가 높지 않은 理由를 아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에 적절한 對答은 숫자 記憶範圍를 測定하는 과정은 目錄全體에 注意를 集中시키도록 하는 반면, 想起-記錄課題는 目錄 중 처리 가능한 部分에만 注意를 집중시키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想起-記錄課題를 遂行한다고 말한 4명의 피험자는 想起-記錄課題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 나머지 13명의 두 과제에서의 相關係數는 .82였다.

### 全盤의인 論議

이상의 실험 結果들은 暗誦, 分類, 목록 등에서 個人差가 成人의 一連의 即時的인 想起에서의 個人差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直接 보여준다. 이에 관한 間接的인 證據들도 찾아볼 수 있다. Lyon은 暗誦 速度와 숫자 記憶範圍간의 相關이 거의 없다는 것과 빠른 提示에서의 探索再認課題 수행과 記憶範圍간에 높은 相關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Brener

(1940)는 숫자 記憶範圍와 색채 및 기하학적 도형 記憶範圍간의 相關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Mackenzie(1972)는 記憶戰略이 作用하기 어렵도록 고안된 繼續的 記憶範圍檢査에서도 記憶範圍要因이 보통의 記憶範圍課題에서와 거의 같은 정도로 作用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만약 一連의 即時的인 想起에서의 個人差가 이번 실험에서 고려된 記憶戰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差異의 原因은 어디에 있겠는가? 최근의 문헌에서 몇몇 提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Parkinson(1974)은 聽覺記憶에서의 個人差가 記憶範圍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說明은 視覺的으로 제시된 재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假說의 하나는 視覺刺戟을 音聲的으로 變形시켜 記憶하는 과정이 聽覺的인 記憶過程과 같은 下位體系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假說은 視覺刺戟을 音聲的으로 變形하고 記憶하는 強度가 聽覺記憶 發達の 직접적인 結果라는 것이다.

또 다른 提案은 Chi(1976)와 Huttenlocher와 Burke(1976)의 發達の 研究에 나타난 것으로 刺戟을 確認하는 速度에서의 個人差가 短期 記憶에서의 個人差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刺戟이 빨리 確認될 수록 그 다음 要目과의 간섭을 막아 주는 記憶痕迹形成에 利用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Baddeley, Thompson, Buchanan(1975)의 實驗에서는 記憶으로부터 要目들을 읽어내는 速度가 記憶範圍에서의 個人差를 結定하는 主要因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Lyon은 이러한 假說을 직접 검증하고자 했으나 支持的인 結果를 얻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여러 다른 假說이 설정될 여지는 個人差에 관한 細部的 實驗研究의 부족으로 아직도 많다. 이제까지는 記憶戰略에서의 差異들이 短期記憶에서의 個人差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短期記憶에 관한 理論들은 個人差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

# 美國의 韓國人 學校

金 性 洙

(本院 責任研究員 · 哲博)

본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쪽을, 글을 쓰는 일보다 읽는 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教育隨想」을 의뢰하여 왔기에 몇 번 사양을 했더니, 軍에서의 신병 신고, 전입 신고와 같은 의무 사항이라며 強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5년 가까운 타향살이에서 돌아와 동서남북의 분간도 힘들다며 훗날로 미루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기에 귀국하여 느낀바를 단편적으로 몇 자 쓰코자 합니다. 하기가 귀국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다 되도록 인사드려야 할 어른들 찾아 뵙지도 못했고, 그 동안 막혔던 정을 대못잔에 풀 친구도 만나지 못한 데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 익히기, 전셋방 얻어 이사하기 등에 분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 우선 한 줄 글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는 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1975년 9월 22일 김포를 떠난 후 여러분의 열려 덕택으로 건강하게 수학하고 지난 7월 7일 귀국, 8일부터 한국 교육 개발원에 출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큰절드려 신고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서 말하는 미국 유학까지 할 수 있었음은 위로는 “하느님의 보우하심,” 또 멀리서 가까이서 지원·격려·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 선생님들, 어른님들 덕택이었음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산골 논 열마지기 농사의 고단 함 속에서도 불효를 탓하지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사랑과 저희 칠 남매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10여 년전 타계하신 아버지의 은덕에 감읍할 뿐

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 오면 배운 것을 익히게 하시고 “求放心”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은 만려 타국에서의 수학 중에도 간직했던 자산으로 과열 과외에 뛰이지 않는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며칠 여행을 다녀와서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 내는데 너에게 왜 그런 미국 이야기들이 없느냐고 물으시면 그저 “사람 사는 것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미지근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이야기 재주가 없음을 탓하시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그치시면 장님 코끼리 구경한 이야기 밖에 없다며 술 잔이나 채워 드리겠습니다.

돈 100弗 응원금 받아들고 떠난 놈이 어떻게 살아 났느냐시면 부끄럽지 않게 일하며 공부할 수 있었고, 빚은 약간 갚아야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고, 객지에서 딸 둘을 얻어 왔으니 “천우 신조”를 감사할 뿐이라고 답해드리죠. 참 그 100弗중 75弗은 선배님 조언대로 일본 공항에서 밥술과 장난감 비슷한 사진기에 탕진하고, 남은 25弗은 귀국하는 날 김포에서의 차비로, 또 최근 유학차 출국한 동문의 응원금으로 썼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들을 했느냐시면 외판원에서 학교장에 이르는 다양성에 표창훈장 이야기들은 생략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훈령을 힘 다해 지키려 했었다는 보고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느냐시면 “그저 그런대로 해 냈습니다.”며, 통금없는 새

벽 이슬이' 아름다웠노라는 문학적 표현을 빌어 올까요?

참, 미네소타 한국학교는 자랑할 만 한 것입니다. 한국인 가정은 물론 한국인을 입양한 미국인 가정의 유치원 나이 자녀에서부터 그 부모들 까지, 포함하는 토요학교인데 한글에서부터 한국 요리까지의 한국을 심어 주는 곳입니다. 학부모 이사진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원들의 사명감은 「한글 공부」라는 책까지 만들어 다른 주의 한국학교에 까지 팔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교를 전업으로 하는 교원 하나 없이 무한정 희생적 봉사만을 요구하는 실정과 셋방살이의 설움 속에 보파리 살림을 해야하는 학교 건물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늦기 전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세 3세들에게 한국을 가르치며 그 곳 사람들에게 한국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첨경의 하나가 바로 이 한국학교 들이며, 이들의 건전한 육성은 우리 국토 면적을 넓히는 길일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에 학교장을 지냈다면 이상히 여기실 것이고, 더구나 제가 교장으로 있으며 힘 들여 한 일종의 하나가 선생님들께 커피를 끓여 드리는 일이었다면 더욱 놀래시겠죠. 그러나, 저는 “교장 눈치 보는 교원의 제도 보다는 선생님들의 복마름을 해결시켜 위로할 수 있는 교장 쪽을 좋아 합니다. 물론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으로는 아니겠으나, 어느 지역의 한국학교보다 잘하는 한국학교 중의 하나였다는데 대해 많은 감사를 드리며 조그마한 자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설 익은 비약이 될는지 모르지만, 국장이 과장, 과장이 계장, 계장이 계열의 가렵고, 복마름을 해소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면, 계열이 시민을 대할 때 부릴 수 밖에 없는 짜증은 감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며칠 전 저 자신이, 동사무소에서 겪어야 했던 불쾌와 피

곤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의 교장—교원 관계를 개선시켜 본다면 교육적으로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그 파급 효과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머리 나쁜 학생 타하는 교원 친구에게는 김 교수님의 “완전 학습의 원리”를 읽도록 권고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같아선 원리의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 밑바탕의 생각을 믿고 실천할 기본 철학, 또는 신조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하는 공상입니다. 그리하여 IQ나 머리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일년에 한 두번 이발하던 아무개도 박사가 됐는데 한 두달에 한번씩 이발하는 학생들을 모욕시키지 말라”는 농담이 유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험 실습 시설은 커녕 과밀 교실 속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께서는 그 시설 좋다는 미국 학교에서의 문제점들을 들추어 낼 것도 없이, 언제나 있을 것이니 지금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며, 풍족한 중의 안 먹기 시위로 끝치를 아프게 한 세살난 딸 용은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나를 이야기 해 드리면 실감이 나실는지도 모릅니다.

농사짓기 힘들어 그만 두겠다는 친구에게 주는 귀국 선물은 사진기에서 자동차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며 큰 소리치던 일본이 콩의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한마디에 투구 벗었다는 해묵은 이야기로 대신하면서 머지 않아 식량=안보가 될 날 오리라는 예언으로 위로를 해 줄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불품없는 형설 수설을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긍정과 아량으로 받아 주시고, 잘못된 소문나지 않게 지적하시며,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게 부축하여 주시면서 일꾼으로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國民學校 體育教育의 性格

柳 三 汰  
(本院 體育教育研究室長)

## 1. 國民학교 체육의 目標

교육의 기본 목표는 어린이가 자아 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성장 過程을 돕는 데 있다. 따라서, 體育의 目標은 어린이 개개인의 신체 움직임(Movement)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게 된다. 자신있게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개인은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極大化할 수 있다. 自我의 實現은 獨立化를 의미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잠재 능력을 깨닫는 데 필요한 체육 활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스스로 意思決定(decision making), 문제해결, 평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체육 프로그램의 조직과 학습 모형은 체육학의 특수한 獨自性에 입각하여 구성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작 경험을 모체로 하여 짜여지는 체육 목표도 체육 교과의 독자성과 學習過程의 특성에 입각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학교의 여러 교과 영역서에 지적·정서적 발달에 관한 유사한 목표들이 설정되고 있지만 성취 과정이나 방법, 학습의 場이라는 면에서 약간씩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체육 학습의 場(체육관과 운동장)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Schurr 1975 : 5)

체육은 어린이 발달의 三大영역—심동영역, 정의적 영역, 지적 영역에 고루 관여하기 때문에 체육은 어린이의 全人教育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Logsdon (Schurr 1975)은 체육목표를 보다 더 움직임(Movement)에 치중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 있다.

① 어린이가 다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② 어린이가 참가자로서 또는 관람자로서 동작과 움직임의 의미, 중요성, 느낌, 즐거움 등을 안다.

③ 어린이가 인간 움직임을 지배하는 여러 지식을 터득하고 이를 적용한다.

Schurr(1975 : 5) 역시 움직임 그 자체에 보다 역점을 두어 아래와 같이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① 어린이가 움직임의 구조를 이해한다.

② 어린이가 힘껏 또 자신있게 움직인다.

③ 어린이가 움직임에 대한 혹은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전달한다.

④ 어린이가 새 움직임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에 대응한다.

⑤ 어린이가 움직이면서 또는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동료와 어울린다.

⑥ 어린이가 움직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Pelidoro(Schurr 1975)는 아래와 같이 국민학교 체육 목표를 열거하고 있다.

① 어린이가 體力, 협응성, 운동 기술 등 신체 발달을 꾀한다.

② 어린이가 인간 관계; 시민성, 협동, 지도력 등 사회성 발달을 한다.

③ 어린이가 긴장에 적응하고, 승패감을 경험하는 등 정서적 발달을 함양한다.

④ 체육 활동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등 지적 발달을 꾀한다.

체육 목표를 보다 상세화한 세부 목표를 설정키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가. 심동영역 목표(Psychomotor Domain)

### 1) 體力要因

(a) 건강과 관련되는 요인 : 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b) 종합 요인 : 순발력

(c) 운동적성 요인 : 민첩성, 반응속도, 평형성, 협응성, 속도

### 2) 기능 요인

(a) 힘(Force)

(b) 시간(Time)

(c) 공간(Space)

(d) 수준(level)

(e) 자세(posture)

(f) 방향(direction)

(g) 신체기저(Body support)

## 나. 지적 영역 목표(Cognitive Domain)

1) 지식(knowledge)

2) 이해(understanding)

3) 응용(conjugation)

4) 분석(analysis)

5) 종합(synthesis)

6) 평가(evaluation)

## 다. 정의적 영역 목표(Affective Domain)

1) 감지(perceiving)

2) 반응(Responding)

3) 가치, 태도(value, attitude)

4) 조직(organization)

5) 특징(characteristic)

6) 행위(behavior)

7) 정서 안정(emotional stability)

8) 인간 관계(human relation)

9) 자기 만족(self-complacency)

이상과 같은 여러 목표 분류와 그 개념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학교 체육목표를 재구성 할 수 있다.

형식이 간단한 여러가지 신체 활동에 참여케 하여 체력과 운동 기능을 높이고, 운동의 실천 및 건강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건강 생활을 습관화하여 즐겁고 명랑한 성

활을 영위하게 한다.

## 2. 국민학교 체육의 價値

### 가. 신체의 성장 발달

體格과 體型은 유전적인 영향을 주로 받는다. 물론 유전요인 이외에도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발육발달이 이루어 진다. 身體運動은 피부조직, 기관 및 골격 형성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육 발달을 보다 높이는 데 필요 불가결 하다.

운동은 生理的인 여러 법칙과 원리를 적절히 잘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生理法則을 잘못 이용할 경우 오히려 발육의 퇴보 내지 쇠약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심유는 특히 이 생리법칙의 영향에 민감하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심유의 크기가 커지고 근력이 증가되는 이유는 운동의 반복에서 온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만약 운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운동은 뼈의 骨化過程에 도움이 되며 또한 골격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한다. 반대로 운동부족은 골격의 발육 정체를 내지 기능 저하를 불러 일으킨다.

호흡 순환계 기관 발달은 활발한 運動에 의해서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運動을 할 때에는 심장에서 보다 많은 피를 뽑아 뱃으로서 각 근육군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호흡계 조직의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폐의 용적이 늘게 된다. 그러므로 生理的인 여러 이론을 적절히 적용시켜 기관과 조직의 기능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허약한 골격근을 가진 어린이는 심폐기능의 발달이 미약함을 의미한다. Espenschade(1960 : 360)는 運動이 어린이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다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고 있다.

運動은 골격, 근심유, 피하지방 등의 균형적인 발달을 꾀한다. 이러한 신체발달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運動은 어린이의 신체 발달



을 피함으로서 각 개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

人體는 천성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망이 깃들어 있다. Murphy(1958 : 339)는 運動欲求는 배고플 적의 식욕처럼 기본적인 욕구라고 일컬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한 組의 기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기관장비(organic equipment)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엔 문제가 야기되기 마련이고 제 기능을 잘하면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는 이런 충족감을 놀이 활동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 성인은 일터에서 이런 느낌을 아울러 맛 볼 수 있다.

오늘날은 작업의 형태가 달라져서 대부분 坐業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전과 달리 작업에서 요구되는 운동마저 박탈되고 있는 형편이다. 주당 일시간이 줄고 여가 활동마저 소극적인 앉아서 하는 게임 형태가 대부분이다. 都市化와 아파트 住居化는 어린이가 놀이 할 수 있는 장소마저 박탈하고 있다. 혼잡한 교통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까지 걸어다니는데도 큰 장애를 받고 있다. 학교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버스를 타며 통학해야 하는 어린이도 많다. 맛벌이 하는 부부(학부모) 수가 늘어감에 그만큼 방과 후 집에 돌아가 집을 지켜야 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어린이들은 밖에서 활발히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Rarick(1964 : 109)의 연구에 의하면 10代 초반의 청소년들은 하루에 적어도 4~5시간은 활발한 신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며, 청년기에는 최소한 하루 1시간 반 내지 2시간 반동안 운동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체육 프로그램일수록 일반적으로 학생의 욕구 충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체육 프로그램은 항상 어린이의 체력 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체육을 즐겨 스스로 참여하는 태도 함양과 나아가서는 평생 체육을 지향한 여가 활동의 중요성 인식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 나. 體力の 向上

어린이는 자기가 처한 환경 하에서 자신의 體

力의 수준에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력은 한 개인이 피로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여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며 긴급 사태에도 대비할 만큼의 충분한 體力를 지녀야 된다. 따라서 어린이는 筋力, 持久力, 왕성한 심폐기능의 유지 및 발달에 힘써야 하며 아울러 질병과 허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二次大戰 이후 歐美 등 외국에서 체력 육성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기본 체력 강화를 위해서 일선 각급 학교에 체력강제도 도입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체력에 관한 연구 활동 또한 활발하여 體力의 效果, 체력 육성 방안, 그리고 체육에 있어서 體力의 중요성과 그 價値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ein과 Ryan(1960)은 체육활동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공헌에 대해 여러 문헌의 고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적절한 체중유지, 질병예방과 비만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해소

② 건강과 심폐조직의 기능 향상

③ 청소년의 身體特性 보존과 심리적인 운동 효과

④ 상해, 재해 및 응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및 즐겁게 운동에 계속 참여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 함양

최근들어 어린이들 중에 過體重 현상이 늘고 있는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과잉 영양 섭취에서 오는 현상 때문이다. 대부분의 過體重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사회적·정서적으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들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설득해 학교 정과 체육시간 이외에도 특별운동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존에 위협을 주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체력이 큰 역할을 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항상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체력을 유지 증강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Hein과 Ryan(1960 : 276)

은 생활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① 달려오는 교통차량을 비키기 위해서 혹은 달리는 차량을 잡아 타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갑작스레 최대속력으로 뛰박질 하기
- ② 옷을 두텁게 입은채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홍수가 나 떠밀려 내려갈 경우
- ③ 건물이나 높은 지대에서 떨어질 경우
- ④ 불이나 집안에 갇히게 되거나 땅굴 속에 매몰될 경우
- ⑤ 산이나 들에 나가 갑작스런 일기변화에 적절한 체온 보호를 못하게 될 경우
- ⑥ 교통사고를 당한뒤 오랫동안 구조대를 기다려야 할 경우
- ⑦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신체 중노동을 오랫동안 계속 해야만 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體力 이외에도 筋伸經 기능 또한 중요하다. 갑작스런 상황에 급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신체 반응 속도라든가 협응성 발달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체육 프로그램은 이런 모든 체력 요소를 포함시켜 계획되어야만 한다.

신체운동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 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케 하고 실제로 경험케 함은 훗날 학교를 떠난 뒤 평생 동안 체력에 관심을 쏟아 지속적인 체력유지 및 그 육성에 힘쓰도록 함이 또한 중요하다.

#### 다. 運動機能의 發達

運動機能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 운동기능 발달은 아기가 모태 속에서 부터 시작하여 생후에 계속 발달을 하게 된다. 어린이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운동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 운동기능은 어린이가 일상생활하는데, 그리고 놀이 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아주 정도 낮은 운동기능을 갖고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성숙도에 입각해서 배워야 할 운동기능의 수준을 정해야 하며 기능 숙달을 위해서 연습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시행착오에 의해 기능 발달을 피할 수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통한 운동기능 습득이 효과적이다.

스포츠는 오늘날 문화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모로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들이 경기에 참여하고 또 관람할 수 있기 위해선 수준 이상의 스포츠 기술 습득은 아주 필요하다. 보다 많은 일반 대중이 스포츠를 통한 여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학교 때부터 스포츠 기능 연마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스포츠 기술은 후에 성인이 되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보다 즐겁고 자신있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스포츠 기능은 각 스포츠마다의 특유의 기술, 장소, 기구, 규칙 혹은 전략을 감안해서 구성되는 여러 동작의 집합형태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보다 체계적·계획적으로 어린이들의 스포츠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운동기능 발휘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만 어린이들은 自己表現의 형태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새 운동 기술을 배우고 또 이를 연습 함으로서만이 어린이는 체력과 테크레이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 또한 학교성적을 높이고 사회성 함양도 꾀할 수 있다.

#### 라. 知的 發達

體育를 통해서 학교 어린이는 知的 發達을 꾀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또한 크다. 어린이의 학업 성취수준은 주로 그의 지적 능력에 좌우되지 만 학습의 잠재력 그의 신체발달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 교육학자들은 건강과 정신적인 면과의 밀접한 관계를 항상 강조해 왔다. 위에서 지적 했듯이 신체운동은 체력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기여가 크다. 어린이가 사회적·정서적으로 잘 적응 될 때 비로소 자기 확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하고픈 의욕이 생기게 된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運動과 학업 성취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Ismail과 Gruber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협응성과 평형성의 측정치를 갖고 학업성취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지각 운동 발달(Perceptual-motor development)과 학업 성적은 서로 상관이 있다는 임상학적인 증거가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어린이의 성장발달의 한 중요한 부분인 지각 운동 발달은 학습단계의 한 단계로서 인정되어 온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연구에 의하면 잘못된 運動型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면 운동기능이 향상되며 아울러 지적인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활발한 게임이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여러 교과 분야에서 학습매체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언어개념(쓰기와 읽기), 수리개념 그리고 과학의 여러 개념 등은 게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Tinning 1976 : 25).

게임 활동을 통한 지도방법이 재래식 교육방법보다 학습 성취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 특히 저능아, 정신 박약아의 학업 지도를 하는데 활발한 체육활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탐구방법에 의거한 기본운동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야 한다. 신체 동작시 공간개념 소개와 근육신경계 발달 뿐만 아니라 지각 운동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체육 활동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런 체육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그 목표와 활동 자체가 동작 교육(movement education)의 개념과 유사하다. 특수아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설치 운영은 정상아를 위한 프로그램 만큼이나 중요하다.

운동학습과 知的 學習은 부분적으로는 똑같은 學習過程을 거치게 된다. 운동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범자의 기술동작과 자기 자신의 과거동작 등을 기억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며 운동연습에 임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기술 향상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육 프로그램은 문제해결식 지도방법에 입각해서 국민 수준에 맞는 기초 운동 기술을 습득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운동과 체력의 관계를 이해토록 함으로써 평생동안 체력을 유지하고 여가활동에 즐겨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놀이와 작업기술의 최상의 목표는 동작의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어린이들은 동작의 역학원리를 배워 새 놀이와 작업 기술을 습득할 때에 응용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린이들이 이러한 역학적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탐구식 혹은 문제해결식 방법에 의해 기초운동 기술을 지도할 경우 어린이들은 중국에는 그 원리 개념을 충분히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적인 성숙을 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역학 원리를 도입하여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함으로서 이해케 할 수도 있다.

#### 다. 情緒 純化와 社會性 涵養

체육은 어린이의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고 도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체육은 어린이들이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경험할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개인간, 집단간의 상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의범절, 정숙, 협조, 정직, 신뢰, 권위와 규칙에 대한 존경심 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약하고 소극적인 사회적 상호관계 경험만으로는 사회적 기술과 도덕적 가치 함양을 충분히 기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의 사회적 경험은 운동기술의 場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운동기술은 어린이의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어린이의 동작경험에 대해서 Guteridge는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신체활동의 기능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어린이가 자기 동료로부터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신체 활동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운동기능이 좋으면 놀이

평가받기 때문에 훌륭한 운동기능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교사는 게임의 장면을 통해 어린이에게 성취감과 사회적인 정감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운동기능을 통해서 또한 어린이는 건전한 자기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Havighurst 1953 : 54). 10살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와 경기능력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냈다(Clarke와 Greene 1963 : 288). 지도력과 스포츠 기술의 연구에서도 어린이가 국민학교 때 보다는 중·고등학교 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관련함을 고찰했다(Nelson 1966 : 268). 따라서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 기능의 양도도가 어린이의 인간관계 및 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어린이는 그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재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운동기능이 낮은 상태로 학교에 들어간 어린이가 학교에서 운동학습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못 갖게 될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타격은 아주 크다.

체육활동은 계속적이고 힘든 학교공부에서 오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풀어 주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정신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산수나 자연 과목 다음에 체육 시간을 넣으면 축적된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발한 체육활동 뒤의 공부 시간에는 보다 정신 집중이 잘되고 능률도 올릴 수 있다 한다. 체육은 어린이의 정서순화에도 기여한다. 놀이나 경기하는 동안에는 감정이 중단된 상태의 연속이다. 게임 그 자체는 경쟁에 주력을 두든 안두든 간에 부담을 주는 활동임에 틀림없다. 무용이나 체조경기는 흥분감을 자아낼 수도 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즐거움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이러한 여러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운동 경기의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터득할 수 있다. 경기를 통해서 패배감을 느끼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 함양이 그 한 예이다. 어린이가 동료와 함께 패배의 쓰라림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는 장차 사회인으로서의 값진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기통제(Self-control)를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또한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 자기 통제를 하는 첫 단계이다. 자기 감정이나 성격을 억제하는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활발한 체육 놀이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고 감정을 순화함으로써 중국에는 자기 적응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적응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시절에 체육 운동 경험을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또한 여기에 있다.

어린이에게 승패감 경험을 갖게 함으로서 자아 개념(Self-concept)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어린이는 나이가 늘고 체격이 불어감에 따라 자기와 동료 어린이의 체격과 체력을 비교하고 견주기를 좋아한다. 체격의 크고 작음 또는 체력이 강하고 약함은 자아개념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Secord와 Jourard(1953 : 343)은 신체 자아개념과 일반 자아개념과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Maslow의 욕구단계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Kehres(1973 : 25)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운동에 대한 생리욕구가 충족될 경우에 어린이의 자아개념은 보다 잘 발달한다고 한다. 놀이나 게임은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활동 형태이다.

자기의 기술 목표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어린이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기술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경우 동기부여의 효과가 크며 아울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민학교 체육 프로그램 계획 및 그 지도과정에서 개인차에 입각한 행동 목표 수준을 설정해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경험토록 하는 것이 어린이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체육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한 교과로서 신체동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의 신체적·정적·지적 발달을 꾀하는 학습 경험 활동의 총체이다. 특히 다른 교과와는 달리 그 특수성은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을 꾀하는데 있다. 따라서 체육교과에서 신체적 영역 목

(40페이지에 계속)

## 國民學校 兒童의 身體的·心理的

### 發達 特性 및 교사의 역할

金 成 玉

(本院 研究員)

#### 1.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아동기에는 동료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신체의 발달이 정상 수준에 비추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동료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가 작고 왜소한 어린이, 뚱뚱한 어린이, 허약한 어린이,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자 어린이, 조숙한 어린이 및 만숙한 어린이 등은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되기 쉽다. 또한 자기 신체에 대한 자아상(body image)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 존중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신체 및 신체의 성장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회적 승인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타인 즉 동료나 부모, 교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의 행동 패턴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Hurlock(1972)는 정상적인 신체발달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신경계 및 뇌의 발달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가져오게 한다. 어린이의 정서적 행동은 상황의 의미에 대한 지각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승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는 타인의 사고, 감정,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과 관계된다.

둘째로, 근육의 발달은 운동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며 어린이가 즐기게 되는 활동 특히 게임과 스포츠의 종류 및 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로, 내분비선의 기능적 변화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는 이성을 좋아하고 외모와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네째로, 행동은 일반적인 신체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Mohr, Barrett(1962)는 유아의 걷는 시기와 지적 발달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신경계통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걸기를 포함한 모든 운동능력이 정상적인 시기에 발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신체적 훈련을 받은 집단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보다 지능 지수가 뚜렷하게 높아 졌다는 연구결과는 운동능력과 지능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Hurlock(1972)은 운동발달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① 건강을 증진한다(good health).
- ② 정서를 정화한다(emotional catharsis).
- ③ 자력에 의한 성취 경험으로 자기 신뢰감과 행복감을 많이 갖게 된다(independence).
- ④ 놀이동무도 없이도 혼자서 자신을 즐길 수 있다(self-entertainment)
- ⑤ 사회화를 촉진한다(socialization).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고 지도력을 배양하게 되며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된다.
- ⑥ 신체적 심리적 안전감(physical security and psychological security)에 의한 전전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self-concept)

이상과 같이 정상적인 운동 발달은 신체적 안

1, 2학년 (7, 8세)

학년에 따른 심신의 발달특성 및 필요한 운동경험

구분 행동특성	발 달 특 성	경 험 내 용
신체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응력 및 거리감이 불완전하고 지각에 대한 반응시간이 늦으며 공간 지각력이 약하다.</li> <li>2. 근육이 급격히 성장하며 대근육군이 소근육군보다 발달한다. 허파나 심장의 발달이 신체발달을 따르지 못하여 지구력이 약하고 쉽게 피로가 온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작운동 및 여러가지 기구를 사용하여 행하는 운동을 고루 경험하게 한다.</li> <li>2. 대근을 사용하는 활발한 운동 경험을 통하여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li> </ol>
정의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욕과 자기 과시욕이 강하며 어른의 반응에 민감하다.</li> <li>2.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책임의식과 집단 의식이 약하다.</li> <li>3. 흥분하기 쉽고 감정이 극단에 흐르기 쉬우며 모험심이 강하고 겁이 없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누구나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여 성취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li> <li>2. 역할이 정해져 있고 서로 도우며 행할 수 있는 팀 활동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li> <li>3. 경쟁이 심하지 않은 운동을 항상 자신과 타인을 고려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행하도록 한다.</li> </ol>
지적인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 집중력이 약하나 기억력이 좋다.</li> <li>2.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모방을 잘하며 호기심이 많다.</li> <li>3. 추상적 사고가 약하나 직접적인 관찰이나 구체적 장면에 대한 추리가 가능하다.</li> <li>4.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되풀이 하려고 하며 더 잘하려는 욕구를 갖는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칙이나 방법이 간단하여 긴 설명을 요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운동으로 과제를 자주 바꾸어 준다.</li> <li>2.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3.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학습장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li> <li>4. 쉬는 시간에도 활동을 반복 연습하도록 하며 신체적·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li> </ol>

3, 4학년 (9, 10세)

구분 행동특성	발 달 특 성	경 험 내 용
신체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응 및 신체 지배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하며 기능이 세련되어 진다.</li> <li>2. 신체의 성장이 완만하고 소 근육군의 발달이 현저하다. 근력의 발달이 성장을 따르지 못한다.</li> <li>3. 자세가 잘못 형성될 우려가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정확성을 요하는 활발한 활동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li> <li>2. 여러가지 신체활동, 특히 소 근육군의 협응이 요구되는 활발한 활동을 명행하여 근력과 지구력을 높인다.</li> <li>3. 좋은 자세를 갖도록 등과 배 근육을 튼튼히 하도록 하며 나쁜 자세를 고치도록 한다.</li> </ol>
정의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름이나 경쟁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생기며, 운동기능이나 체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i> <li>2. 구름의 결정에 따르며 어른의 의견보다 동료들의 의견을 중시한다.</li> <li>3. 모험심과 경쟁심이 강하다.</li> <li>4. 이성에 대한 적대감이 싹튼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로 돕고 규칙을 지키며 공정한 플레이를 하는 태도를 조장하도록 팀 활동을 많이 경험케 한다.</li> <li>2. 게임에 필요한 작전이나 선수의 태도 등 활동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li> <li>3.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용기와 모험이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시키도록 하며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li> <li>4. 운동에 따라 남녀 공동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준다.</li> </ol>

지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집중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직 짧다.</li> <li>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창조력이 풍부해 진다.</li> <li>합리적 사고가 싹트며 옅고 그룹에 대한 판단을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이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운동을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li> <li>동작의 간단한 기능적 생리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li> <li>여러 가지 문제 사태를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li> </ol>
-------	--	---

5,6학년 (11, 12세)

구분	발 달 특 성	경 령 내 용
행동특성 신체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력과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성인에 가까워지며 거의 자동화 된다.</li> <li>급격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며, 성장에서 개인차가 현저해 진다. 근육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나 신체 성장을 따르지 못한다.</li> <li>여러 가지 자세에 대한 습관이 형성된다.</li> <li>여자는 대부분 사춘기가 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스포츠 기능에 역점을 두고 정확한 동작과 좋은 폼이 형성되도록 하며 활동이 활발하고 운동량이 많도록 한다.</li> <li>근력, 지구력, 유연성 및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고루 경험케 한다.</li> <li>여러 가지 자세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갖도록 한다.</li> <li>종목에 따라 남녀 공동활동을 시킨다.</li> </ol>
정의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좋은 운동기능과 체력이 사회적 인정을 받게 중요하며, 남을 능가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보다 세밀한 기능에 관심이 있다.</li> <li>자신의 책임의식이 증대되고 구름이나 경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며 어른보다 동료들의 의견을 중시한다.</li> <li>모험심이 강하고 영웅을 숭배한다.</li> <li>흥미에서 성취가 나타나며 이성에 대한 대립의식이 증대된다. 여자는 운동을 기피하려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른 폼과 숙달된 기능의 연습을 통하여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습득한 기능을 개인 및 사회의 건강생활에 연결하도록 한다.</li> <li>안정성이 있는 구름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돕고 규칙을 지키며 토의를 통하여 결정된 의사에 따르도록 운동정신을 강조한다.</li> <li>경쟁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하게 하고 훌륭한 게임을 많이 관람케 한다.</li> <li>종목에 따라 남녀 공동활동을 시키며 여자에게는 운동에 대한 바른 태도에 역점을 두고 남자에게는 체력 향상에 주력하도록 한다.</li> </ol>
지적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집중시간이 비교적 길어진다.</li> <li>“왜” “어떻게”를 알려는 욕구가 강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려 한다.</li> <li>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려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 규칙, 전술을 배울 때 연습과 시간을 요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li> <li>신체활동에 필요한 간단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제공한다.</li> <li>각종 신체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li> </ol>

정, 경제적 효능성, 정서적 안정성, 성취동기 및 창의성의 육성, 사회적 적응, 여가선용 및 레크리에이션, 건전한 인성발달 등 인간 행동의 거의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미숙한 운동기능 때문에 받는 심리적 손상도 상대적으로 지대하다. 그 영향은 신체적 성장에서의 천연이 주는 것보다도 심각하다. 운동기능의 천연 및 미숙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을

들어보면, 열등의식을 갖는다거나 자기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며 놀이동무들로부터 소외당했을 때 질투감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서투른 신체기능을 부모나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귀인행동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웃음을 당하고 나서 비웃는 어린애와는 멀어지려는 사회적 거부 현상을 나타낸다. 이들 어린이는 또 남에게 의존성이 강하며 남 앞에서 또 실패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손상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심리적 손상 중에서도 자기 신뢰감의 결핍과 열등의식은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된다. 특히 자기 신뢰감이 결핍된 어린이는 그들의 결핍점이란가 말하는 태도, 몸짓 등 일상생활 장면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또 청소년 및 성인들이 갖는 열등의식을 분석해 보면 흔히 아동시절의 상기한 미숙련(awkwardness) 및 천연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낼 수 있다고 한다(Hurlock, 1972).

## 2. 體育學習에서 教師의 役割

국민학교 체육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어린이들이 동작개념(movement concepts)을 이해하고 동작기술을 터득하도록 적절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교사는 운동이론, 어린이의 성장발달 요인, 여러 운동 기술, 생리적인 원리, 기타 전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한 학급 교사로서의 자질, 그리고 학급 및 교육과정 이론 등을 충분히 이해 해야만 한다. 또한 교사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려는 흥미와 욕구가 있어야 하며 체육은 교육과정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신념과 태도를 갖고, 운동을 사랑하고 또한 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해 교재와 새 아이디어를 개발 연구해 낼 수 있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여러 서방국가에서는 탐색운동(movement exploration)의 개념을 국민학교 체육에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그 결실을 크게 거두고 있다. 따라서 탐색운동이 앞으로 체육 프로그램에 도입될 경우 체육 담당 교사의 역할과 그 책임은 그만큼 크게 된다.

탐색운동은 체육 활동 지도의 한 새로운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자연적인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어린이는 탐구하고, 모방하고, 또 교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어린이는 주로 자기 스스로 탐구 활동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한다. 탐색 운동은 얼핏 보기에 비 체계적이며 비 조직적인 지도 방법처럼 보인다. 탐색운동 프로그램에서 각 어린이는 교사가 설정해 주는 과업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학습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들의 과정을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유도해야 된다.

탐색운동에 입각해 학생을 지도할 경우 각 교사는 다음과 같은 운동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시간(time), 공간(space), 힘(force), 방향(direction), 진로(pathway), 그리고 흐름(flow) 등이다. 교사는 미리 제시된 주제를 갖고 학습지도를 하게 된다. 탐색운동 지도 교사는 시범 보이는 모형 교사가 아니고 어린이가 스스로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돌보고 조언해 주는 도움자(helper)의 역할을 해야 한다. 탐색운동은 문제해결 접근 방법에 치중하며 창의력 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金聖泰. 韓國兒童의 行動發達에 關한 研究. 人文論集(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67.
2. 白南振. 韓國人 小兒 身體發達에 關한 研究. 大韓醫學協會誌 1961.
3. 張秉琳. 教育心理學 서울 博英社. 1968.
4.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5th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2.
5. Mohr, D.R., & Barrett, M.E. Effect of knowledge of mechanical principles in learning to perform immediate swimming skills. Research Quarterly, 1962, Vol. 33.
6. Daniel D. Arnheim and Robert. A. Pestolesi.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978, Mosby company.
7. Victor P. Dauer, Dynamic physic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1971, Burgess Publishing Company.



## 國民學校 兒童들의 運動學習

朴 贊 弘

(本院 研究員)

### 1. 學習의 法則

교육학자들은 흔히 Thorndike의 學習의 法則을 學習過程을 설명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 학습의 법칙은 준비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이며, 이 3 법칙들은 학습자와 학습過程의 상호관계를 설명 해 준다. 앞으로 이들 3 법칙을 체육에 관련지어서 특히 운동 학습過程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

#### 가. 준비의 법칙

① 교육의 過程에서 어린이는 자기가 성장 발달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조직적인 학습경험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어린이는 13~14세에 가서 대수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을 하게 된다. 그 나이 이전에는 단지 대수 개념보다 훨씬 쉬운 수 개념을 경험 하게 된다. 만약 어린이가 나이 6~7세 때 대수를 배우게 된다면 바람직한 학습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② 체육에서 어린이는 운동학습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농구를 하기 위한 기술은 생리적인 성숙도 면에서 볼 때 1학년 학생에겐 부적당하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 크게 긴장감을 주지 않는 리듬 운동, 동작교육 혹은 기타 놀이 활동 등에 참여함은 무관하다.

③ 운동학습에 관련되는 생리적인 준비는 아래 ④~⑥에서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복

합적인 요인과 직결된다

④ 생리적인 성숙은 어린이의 신경계의 상태와 또 근신경계의 기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아가 옆으로 구르고, 물체를 휘어 잡고 또 뒷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생리적인 성숙도 여하에 달려 있다. 생리적 성숙은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선천적인 유전요인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생리적인 성숙이 20대에 이르러 끝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발달이 계속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는 여러 견해의 차이가 있다.

⑤ 생리적 준비의 두번째 요인은 운동발달이다. 신체동작의 일부 요인—민첩성, 근력, 지구력 등은 단지 연습을 통해서 발달 된다. 연습량이 부족 할 경우 그 어린이는 적절한 수준까지 운동발달을 끌어 올릴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신체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여야만 어린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운동발달을 꾀할 수 있다.

⑥ 생리적 준비의 제 3 요인은 기본학습이다. 기본학습(foundational learnings)이란 어린이가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배워야 할 기본 기술을 의미한다. 이것은 체육학습과정에서 진보도에 입각한 단계적 지도원칙과 직결되는 것이다. 단계 낮은 운동 기능을 숙달한 뒤에야 보다 차원 높은 다음 단계의 운동기능 학습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연습의 법칙

학습자는 이미 터득한 초기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기술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동 수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기능을 높일려고 노력하다보면 기초 기술을 망각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이를테면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가 폴카스텝(polka step)을 배운뒤 다른 무용 동작을 배우면서 동시에 전에 배운 폴카스텝 동작을 때때로 반복 상기 시켜야만 한다.

#### 다. 효과의 법칙

효과와 법칙이란 어린이가 어떤 경험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는 이 만족감을 다시 얻기 위해 경험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하기 싫은 활동보다는 즐겁고 만족감을 주는 활동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끌게 된다.

체육에 이 학습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성공감을 맛보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태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을 뜻한다.

## 2. 動機

대부분의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좋아 한다. 학교에 들어 가기전의 어린이들은 누구의 지도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들 스스로 여러 놀이 활동에 참여 하길 원한다. 단지 이 어린이들은 그 놀이 활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한다. 국민학교에 들어간 뒤엔 신체활동이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되어 놀이 자체가 조직화되고 지도와 통제를 받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정과 체육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놀이 동작을 어떤 일정한 형태의 운동기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① 어린이는 계속적인 운동기능 발달을 위해 자기의 기본 기능을 세련시킬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체육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주로 어린이 스스로 동기화 되어야 한다. 어느 특별한 기능을 배우기에 앞서 그 기능에 흥미가 있어야만 기능학습하기에 충분한 동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어린이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기 전

에 그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그 수영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에 의해서 동기화 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스트로크 연습에 임하며 또한 기능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수영 학습에 별 흥미가 없거나 수영을 배워야 할 개인적인 필요성이 없을 경우 연습에 별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것이며, 오래동안 연습을 한다해도 그리 큰 기술 발달을 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동기부여가 안된 학습자는 효과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기에 어렵다. 교사로부터 강제로 동기를 부여 받으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기능을 배우는데 오히려 그 속도가 더 느리다.

④ 어느 기능을 시도 하는데 있어서 도전과 자극이 있어야 한다. 도전과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기능 수행은 그리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⑤ 기능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흥분과 긴장감을 자아내야 한다. 긴장과 흥분이 간단한 운동 동작이나 대조 협응성 등 운동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복잡한 운동 기능 학습시 학습자의 고조된 긴장과 흥분에 의해 때로는, 방해가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육 교사는 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긴장과 흥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 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면에서 동기화 하는 것이 운동 기능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 3. 個人差

두 어린이는 기능학습 과정에서 똑같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어린이는 운동 기능이 똑같은 수준으로 성취 될 수 없다. 여러 운동 기능학습 과정에서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① 각 어린이의 학습 속도는 제각기 다르다. 다른 어린이 보다 특수한 기술을 더 빨리 터득 하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어린이일지라도 서로 다른 운동 기능을 배우는데 있어서 느리고 빠를 수도 있다. 개인차의 문제에 교사

는 항상 관심을 두어 어린이의 운동 학습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

② 어린이의 열망도 또한 운동능력 수준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의 평가가 있는 때마다 각 어린이들은 평가에 대비하여 성취해 야 할 자기 자신의 성취목표의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어느 어린이는 자기 운동 능력 이상 높게 기준치를 잡는가 하면 다른 어린이들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도전을 해 볼려고 하며 또 다른 어린이들은 도전의 성격을 벗어나 아주 낮은 운동 수행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③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적의 수준으로 운동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기술을 발휘할 때 그 어린이의 욕구 수준을 훨씬 넘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 쉽게 성취 할 수 있다면 그 어린이는 신체 기능 발휘에서 최적수준의 성취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4. 運動機能의 學習

국민학교 연령층의 어린이는 운동기능의 수준 이 낮고 동작이 미숙한 것이 그 특징이다.

① 운동 기능을 배우면 배울 수록 그만큼 더 어린이는 동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국민학교 때는 연습을 통해서만이 운동 기능을 가장 잘 발달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때에 어린이들은 보다 효과적 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동 기능을 배울 수 있다. 너무 설명위주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그리 큰 운동 기능 발달 의 효과를 못 얻게 된다.

② 운동 기능 초보자는 자기 능력 수준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할 수 있다. 설명 위주의 체육지도는 학생의 흥미를 끌 기가 힘들다. 그러나 영화나 슬라이드 등 다양한 여러 교육 매체를 동원하여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면 보다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③ 국민학교 교학년(5~6학년) 어린이는 초보 단계 기술수준을 넘어 서서 운동 기술에 대한 자

신감이 들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설명에 의한 이론 강의의 비중을 줄·늘려도 좋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항상 체육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 기술 습득 및 그 발달을 꾀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사는 어린이가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시간과 설명 강의를 듣는 시간의 비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체육수업의 효율화를 올려야 한다.

④ 어린이가 운동기능을 어떻게 쉽게 잘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어린이가 이미 경험한 기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직결 된다. 이 개념은 국민학교 저 학년 단계의 동작 교육(movement education) 프로그램 운영과 크게 관련이 된다. 동작교육은 어린이가 운동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하나의 도구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터득케 한다. 따라서 동작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비중을 두어 보다 쉽게 광범한 운동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5. 운동 학습에서 考慮해야 할 사항

온도, 광도, 환기 등과 같은 체육 환경 요인 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체육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구 및 시설 관리와 같은 외적 환경 요인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도 체육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환경 뿐만 아니라 내적 환경 요인인 어린이의 학습 그 자체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학습은 어린이 개인에 따라서 특유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어느 한 학습 방법이 모든 어린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없으며, 똑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없다. 국민학교 학생 들을 담당하는 체육교사에게 지침이 될 만한 몇 가지 보편적인 개념들을 소개한다.

① 운동학습능력(motor educability)은 개개인 의 어린이에 따라 모두 다르다.

즉, 두 어린이가 운동 기능을 똑같은 속도로 습득 할 수는 없다.

새로운 기능을 쉽게 익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운동 학습 능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운동 기능 학습 또한 개개인 어린이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가 운동 기능을 익히는 정도는 그의 유전적 요인, 동기, 신체 활동의 사전 경험, 신체적 훈련의 양, 운동 원리에 있어서의 학습 전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③ 운동 기능 수행 능력은 각 어린이에 따라 모두 다르다.

어린이의 운동 능력, 체격, 나이, 개성, 동작의 특성 등이 어린이의 운동 기능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④ 어린이들의 초기 단계의 기술적인 동작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기능 수행에 있어서는 폼(form)보다도 기술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운동의 폼과 그 효율성은 성공적인 운동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루어 진다.

⑤ 精神的 想念(mental imagery)이 운동 기능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구르기에 대해 설명만 듣고서는 어린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 기능을 행하기 전에 자기가 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가 사전에 머리에 떠올라야 한다.

⑥ 기술과 능력도 그것이 이용되는 동작에 따라 다르다.

같은 평형성도 운동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다른 평형성이 요구된다.

예를들면, 평균대 위를 걷는 평형성과 물구나 무서기에 필요한 평형성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속도, 민첩성, 유연성, 근력, 그리고 운동의 원리같은 특성은 운동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된다. 이러한 운동 특성은 단 한두 번만의 경험으로 학습 될 수가 없다.

⑦ 처음부터 운동 기능이 높은 어린이는 계속해서 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다.

운동 기능은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운동 학습 과정에서 高原(plateau)에 이르렀거나 본래 기능이 아주 우수한 어린이는 그 기능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운동 기능도 역시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체육의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어린이는 체육의 다른 분야에서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⑧ 운동 기술 연습은 운동 수행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인과 직결시켜 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차가 기술을 가르칠려고 한다면, 실제 시합에서와 같이 공을 굴리면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만약 정지된 상태로서의 공으로만 훈련을 계속 한다면 실제 시합에서 구르는 공을 대했을 때 당황하게 된다.

⑨ 종합적 훈련보다 개별적 훈련 방법이 효과적이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음 작으나 인내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 가지 기능을 위해 훈련 시간이 짧아야만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습득 할 수가 있다.

또한, 훈련의 회수는 자주 가져야만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기능을 교대로 반복 실시해야만 효과적이다.

⑩ 체력은 체육 프로그램에서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학교 어린이는 어느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강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한 수준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는 없다.

## 6. 운동 學習過程

학생들이 운동 기술을 학습할 준비가 충분하여 있고 동기화되어 있으며 또한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해서 자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학습은 하나의 過程을 거쳐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학습 지도 방법은 운동 학습 과정상 그 한 부

분에 불과하다. 운동 학습 과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어린이에 따라 각각 달라야 하며 또한 각 어린이의 요구와 흥미에 맞추어 그 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① 기능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습관화되어야 한다.

훌륭한 기능 발휘를 했을 때 교사가 칭찬을 해 준다 해서 항상 기능 발휘를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어린이의 정확한 기능 발휘는 개인의 근육운동지각을 통해서 강화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가 처음에 훌륭하게 발휘한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② 근육운동지각은 하나의 기능으로부터 다른 기능으로 전이 시킬 수 있다.

어린이들은 종종 평균대 기술을 배운다. 그들은 평균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체육관 바닥에서도 준비 운동을 한다. 바닥에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평균대 운동에서 요구되는 근육운동지각을 터득 할 수 있어 실제로 평균대 위에서 이를 응용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근육운동지각은 또한 수영에서도 전이가 가능하다. 즉 마른 땅 위에서 수영 동작을 연습하여 물 속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③ 기술은 자주 훈련을 계속해야만 그 기술을 유지시킬 수 있다.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학습이 강화 될 기회를 박탈 당하면 어린이는 효율적으로 기술 발휘를 못하게 된다.

④ 학습의 실마리는 초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기능의 중요 부분만을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어린이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익혀야 할 핵심 부분을 지적해 주면 효과적이다.

⑤ 운동 기능 학습에서는 과잉 학습이 중요하다.

단 한번의 성공적인 기능 발휘로 그 기능을 완전히 익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기능 발휘를 계속시켜서 그 기술 동작이 과잉 학습이 될 때까지 행해야

한다.

⑥ 운동기능의 발휘 수준은 항상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일주일 정도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그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이 때는 그 어린이에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 동기화가 필요하다.

⑦ 운동기능 발휘 기준 설정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해야 한다.

운동기능 발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어린이들은 실패하기 쉽다. 그 기준은 어린이들이 적당한 정도의 도전으로 이를 수 있어야 한다.

⑧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고서 운동을 수행하면, 더욱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이 현상을 피드백(feed back)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습 과정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 ]

## 참 고 문 헌

1. 金在九. 敎材研究와 授業의 實際. 서울: 現代敎育社, 1970.
2. 李榮德. 敎育의 過程, 서울: 培英社, 1969.
3. 威宗圭. 學習指導, 서울: 旺文社, 1966.
4. 洪雄善. 敎育과정의 이론적 기초, 서울: 培英社, 1971.
5. Charles A. Bucher and Evelyn M. Reade, Physical Educaoin and Health in the Elementary school. 2nd. ed. 1971, Macmillan Co.
6. Cratty, Bryant J. Movement Behavior and Motor Learning. Philadelphia: Lea & Febiger, 1967.
7. Johnson, Warren R. Ed. Science and Medicine of Exercise and Sport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0.
8. Oxendine, Joseph B. Psychology of motor learning.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8.
9. Singer, Robert N. Motor learning and human performa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8.
10. Skinner, B.F. The Technology of teaching.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8.

## 國民學校 體育學習의 評價

姜 信 福

(서울大學校 師大敎授)

### 1. 體育學習에서 評價의 機能

체육측정의 기능은 어느 한 시점에서 주어진 학습경험에 대한 현황이나 그 능력을 확인 하기 위함이다. 측정을 통해서 체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측정결과는 학습 성취나 진보도를 확인하고, 같은 능력이나 실력에 입각해서 개인을 분류하고, 취약점을 진단하고, 학습능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나아가서 측정결과는 학생과 교사의 동기화 능력에 입각한 학생지도, 체육의 연구, 교사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점검, 체육의 홍보활동 등을 위한 정보 수집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Meyers(1974 : 10)는 다음과 같이 체육 측정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① 설정된 체육의 목표—신체 및 기관 발달, 신체기술 발달, 심리 발달, 및 사회적·도덕적 발달에 입각한 개개인의 현황과 능력을 재기 위함이다.

② 여기 목표영역의 학습 발달을 타진하고 동기화 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③ 어린이 개인의 체육 전반에 걸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취향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④ 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진단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Vannier와 Gallahue는 다음과 같이 국민학교 체육 평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체육활동을 통해서 함양되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② 운동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신체 특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③ 신체활동의 능력에 입각해서 어린이를 분류 하기 위함이다.

④ 체육 교수 활동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Meyers(1974 : 10—16)는 위에서 언급된 체육 목표에 근거를 두어 체육측정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① 어린이가 최대한으로 발달 할 수 있도록 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각 어린이의 체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의 체력과 기관발달을 증진키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력에 관한 자료는 근력, 신체적성 및 운동적성, 또는 심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② 체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내용을 구성하고 수업에 참여할 학생을 분류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의 흥미와 취향에 따라서 체육 수업을 진행 할려면 각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의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입각한 학생 분류를 함으로서 보다 큰 학

습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학생 분류에 의한 분 단 지도는 체육에서 많이 장려되어야 할 지도 방법이다.

③ 운동기능의 성취도와 그 능력을 진단해 보기 위함이다. 성취도 검사 결과에 의한 학생지도의 방향 설정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느 특수 한 종목에 치우쳐 기능발달을 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미숙한 스포츠 종목에도 눈을 돌리도록 권장 지도하여야만 국민학교 체육의 목적에 부합 되게 된다. 따라서 운동 기능성취도 검사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에 필수적이다.

④ 신체 자세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불량자세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성장 발육이 아주 왕성한 시기인 국민학교 연령층의 어린이는 건전하고 균형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자세 발달과 또 그 교정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자세 측정 및 그 진단은 체육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⑤ 체육활동에 대한 지식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의한 스포츠 교육의 재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체육의 지식 이해는 운동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태도, 습관, 가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⑥ 체육활동을 통해서 함양된 어린이의 사회성 및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체육 목표의 3영역 중의 하나인 정의적 목표에 대한 학습 성취 평가에 그 동안 관심을 적게 두어 온 것은 사실이다. 평가는 설정된 학습 목표에 의거해서 각 영역별로 고루 평가 되어야만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균형적인 어린이의 성장 발달을 꾀할 수 있다. 정의적 목표 영역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또한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⑦ 체육 프로그램의 개인 성취도를 확인하고 또한 성적을 산출키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습이 이루어진 뒤 어린이가 이룩한 학습 성취의 양과 정도 등은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및 그 지도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키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평가의 기능 중

의 하나이다.

⑧ 신체적성, 일반 운동능력, 경기능력, 기타 여러 체육 및 스포츠의 기술 검사를 위한 성취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함이다.

체력 및 운동 능력에 대한 성취 기준치가 설정되면 어린이들은 그 성취 기준 목표를 향하여 노력을 경주 하게 되어 크게 동기 부여가 된다. 또한 그 성취 기준에 의해서 일반 대중의 체육을 보다 잘 이해 하게 되며 체육의 가치가 높아 지게 된다. 체육의 가치가 높아 지게 된다. 체육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의 하나는 학년 및 연령에 따른 각 개인의 신체적인 학습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⑨ 효율적인 학습과 수업을 위한 動機 道具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학습평가 그 자체가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운동기능 발달에 이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학기 말에 한 차례의 기능 검사만을 지양하여 가능하면 여러 차례 주기적인 학습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⑩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의 상대적 가치와 그 프로그램의 강조점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균형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하나의 이상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일선 각급학교 교사 및 행정가의 교육철학의 차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국민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종목 몇 개를 정과 시간에 경험 활동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각 종목별로 치중 해야 할 정도는 얼마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평가의 자료에 크게 의존 해야 할 것이다.

⑪ 교수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항상 학습 지도 방법을 향상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하게 된다. 학습 평가를 통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어 중국에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역할이 중요 시 된다.

⑫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키 위한 연구를 하고 각 프로그램 영역별로 보다 효과적인 검사도구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된 측정 목적은 체육 프로그램이나, 특성 및 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측정목적의 또 다른 목적의 하나는 수집된 측정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보다 나은 평가 방법·도구 등을 개발 하는데 있다.

⑬ 일반대중, 교육자 및 학생들에게 체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설명 해 주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체육 교사는 일반대중이나 기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체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성취도를 설명 해 줄 수 있도록 신뢰할만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항상 최신적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측정·평가는 주기적으로, 혹은 항상 이루어져야만 한다.

## 2. 體育學習의 평가 동향

교육학이나 다른 학문영역의 동향처럼 측정·평가의 동향도 항상 변화한다. 새로운 강조점이 부각되고,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지고, 또 철학이 변함에 따라 그 분야의 연구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고도 기계 문명의 시대에 부응하여 오늘날은 지식의 폭증을 자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식의 폭증은 새 지식, 새 이론의 도입을 의미하게 됨으로 학문은 항상 역동적이다.

Barrow(1971: 23-26)는 최근의 측정평가 분야의 새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고 있다.

### 가. 운동 기술 측정의 정화

지금까지 개발 되어 온 교육측정 도구들은 새 시대의 흐름에 크게 충족시켜 주질 못하고 있다. 체육의 세 목표 영역 중 심동영역과 관련되는 측정 도구를 주로 개발 해왔는데 그 도구의 수준과 검사 하고자 하는 기술 영역 등이 재 측정되고 재 검토되어가는 추세이다. 스포츠 인구의 확대와 기술의 다양화에 발 맞추어 평가도 구도 보다 전문화되고 발전된 상태로 개발해 나

가는 추세다.

### 나. 지적 영역 발달 측정

체육의 심동 영역발달 측정과 마찬가지로 지적 및 정의적 영역 분야의 측정·평가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츠 규칙, 기술, 용어 및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평가도 매우 중요 하지만 체육활동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는 사고력 향상 등 지능 발달에 대한 측정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동작 교육(movement education) 개념에 입각한 체육 지도 방법이 어린이의 지적 발달, 특히 창의력 개발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 보기 위한 측정 도구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은 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 다. 주관적인 측정도구 사용

체육의 특성상 주관적인 측정만으로는 포괄적인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모두 이용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측정 도구 개발과 평가 방법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라. 보다 정밀한 측정 기술 개발

자동화의 시대는 우주선이 위성에 다녀 올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체육학 분야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어 재래식 측정 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의 한정된 지식에 입각해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 측정 방법에는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측정 기구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 마. 각급 학교의 측정 평가 연구

지금까지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대학에서 교사 교육을 잘 받고 배출된 교사들이 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바. 개인의 욕구를 알기 위한 진단 측정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단과 예측이 뒤따라야 한다.

교사가 어린이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여러 검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진단은 전 체육 프로그램에 걸쳐 포괄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 사. 심폐 기능 측정 강조

최근에 많이 즐기는 조깅(jogging)은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날 추세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달리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심폐기능 발달에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그 기능 측정에도 아울러 관심이 커가고 있다.

5분 혹은 12분씩 트레드밀 달리를 하여 심폐기능 측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아. 지각 운동 평가의 강조

체육 교사는 지각과 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운동기능 학습 후 지각 운동 측정을 통해 여러 가지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운동 학습 부진아의 체육 지도를 위해서. 최근에는 지각 운동의 평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 자. 운동 능력 검사의 재 고려

스포츠의 각 기술은 어린이의 일반 운동 능력과 모두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시말해 스포츠의 특수한 기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운동 능력과 관련이 적거나 없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의 스포츠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 운동 검사로 대신 할 수가 없다. 스포츠 기술과 직결되는 기술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체육 측정 평가의 동향 이외에도 교사 평가의 강조, 운동기능 검사(Proficiency tests) 제도의 이용 확대, 그리고 動機 측정 등을 들 수가 있다.

## 3. 評價의 原理

효율적으로 체육을 계획 하기 위해서는 평가 계획이 필수적이다.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육교사는 평가 원리를 충분히 이해 하여야 한다. 몇몇 평가원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결과(Product) 확인

평가는 건설적이고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와 직결된다. 체육교사의 책임의 하나는 체육 프로그램 실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확인 하고 아울러 현재 사회에서 확인되고 또 인정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체육의 바람직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교육된 한 인간으로서의 특성과 자질을 갖춘 학생 그 자체이다. 이러한 특성과 자질은 가치이며, 그 개인은 체육의 목적이다. 기타 나머지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추구되는 결과는 하나의 이상—체육 운영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목표설정의 기초가 되며 평가의 기준이 된다.

### 나. 目標 설정

평가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결정되고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는 敎育課程에 포함 시킬 수 없다. 체육의 목표는 바람직한 결과 성취를 위해 그 지침으로서 설정이 되며, 수업과 학습의 차이를 두게 한다. 또한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측정의 질차는 목적에 따른 결과의 변화와 관련 된다. 평가는 변화의 방향 뿐만 아니라 변화율 그리고 그 변화의 중요성을 확립 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만약 평가가 변화 방향과 변화율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 하기 위함이라면 그 목표는 세부적인 결과에 의거해서 분석되어야 한다. 목적과 결과는 체육 課程의 중요한 부분이다. 목적과 결과가 없다면 평가는 무의미 하게 된다. 목적 없는 평가도 또한 생각할 수도 없으며 가치가 없다.

#### 다. 過程 설정

가치선택과 목표설정이 될 때까지는 평가는 교육과 관련이 없다. 마찬가지로 평가는 그 過程이 설정될 때까지는 정의될 수가 없다. 체육은 그 過程이 설정 되어야 하며 이 過程은 아울러 價値 추구를 위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측정 기술은 過程의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 측정은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過程 계획상 필수적이다. 또한 측정은 결과의 상황과 진보도를 파악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過程이 절대적이다. 지도력이 약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적합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 라. 結果와 過程의 자료 수집

평가는 결과와 과정의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의 한 기술이다. 질적 혹은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두 측정 기술이 사용된다. 수집대상 자료는 결과와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질들로서 그 양과 정도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 특성이나 특질들이 모두 측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성들이 측정될 수 있도록 그 도구나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평가가 가능하다. 분간하고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만큼 그 평가는 주관적이 된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판단으로 할 수 있다. 質的 측면의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 마. 과학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필요

측정과 평가는 체육과학 발달에 꼭 필요하다. 평가가 없는 교육은 항해도와 콤파스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과거와 현재가 없이 미래의 과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엄격히 말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측정 없이는 체육이나 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 이를테면 스포츠에서 측정 없는 모든 동작은 그 의미가 떨어진다. 육

상경기에서 넓이뛰기의 승패는 뎀 거리의 미터(m)로 가늠 한다. 농구경기의 승패는 득점수로서 결정한다. 수상경기의 다이빙은 점수로서 승패를 정한다. 체육 측정·평가는 체육의 過程上 그 중요성이 크다.

#### 바. 측정과 평가의 차이

측정보다는 평가가 더 포괄적이다. 측정은 단순히 상태만을 확인하나, 평가는 어느 상태의 자료를 비교하고 또 이미 설정된 기준을 비교하며 앞으로 취하게 될 변화를 가르켜 준다.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재 계획하며 인사 및 시설관리와 지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평가는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체육교육 현장에 적용토록 해야 한다.

#### 사. 측정의 객관성

모든 측정이 객관적이지는 않다. 초, 시간, 미터 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검사치와는 달리 측정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객관적인 기술로 만든 측정기 어려운 특성이 많으며 이 특성의 측정치는 수량적인 단위로 표시할 수가 없다. 때로는 주관적인 측정치는 객관적 측정치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당면한 체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주관적인 측정치를 어떻게 수량화하고 체계화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느냐 이다. 동일시 될 수 있고 구별 될 수도 있는 특성과 요인은 수량적인 측정에 적합하며, 반면 측정기 어려운 구성 성분이 각기 다른 특성은 질량적인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아. 수업과 측정과의 관계

검사나 측정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한 기술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교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수이며 그 교수는 학생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기능활동을 위해 쓰여지지만 학생 경험 활동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 해야 한다. 정과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측정을 포함 시킬 경우 측정하는 동안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 지게 된다. 측정 뒤엔 항상 평

가가 뒤 따라야 하므로 평가를 위한 시간 배려도 중요하다. 측정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정상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스포츠 기술 검사 그 자체가 기술연습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일반적으로 체력측정검사는 체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것은 자기평가(Self-evaluation)의 기본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평가의 일부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자. 측정의 특수목적

교사와 학생은 측정에 관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하게 된다. 측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측정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한다. 측정 그 자체는 언제나 역동적 이어야 한다. 학생의 경험 활동에서 얻어지는 측정결과에 따라 목표의 수정 새 프로그램 계획지도 방법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즉 측정 및 평가 결과에 의해서 학습을 위한 분류, 지도, 동기 및 성적 처리를 하게 된다.

#### 차. 평가 전문인의 역할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프로그램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체육 평가 전문인 이외에도 여러 일반대중, 학부모, 학생 등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다.

다음은 체육 평가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평가에 관한 지식과 능력이다.

① 측정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 기술을 이해하고 평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세한 특수 목적에 따른 평가 방법과 검사 선택 방법을 이해 하여야 한다.

③ 평가관리의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객관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자료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검사 결과를 스스로 분석 할 수 있고 이를 학생, 학부모, 행정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체육 프로그램의 결과와 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타인의 도움을 요청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독자적으로 측정 기술을 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⑦ 독자적으로 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검사성적에 의한 기준도 설정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 처리 개념을 이해 하여야 한다.

⑧ 측정과 전 교육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또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목표 및 평가와의 관련성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

#### 참 고 문 헌

- 1) Harold M. Barrow and Rosemary McGee, A practical approach to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Second Edition, 1971 Lea and Febiger
- 2) Carlton R. Meyers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1974 Ronal press company
- 3) Harold M., Barrow.: The "What" and "How" of Testing The Physical Educator, 12, March 1955
- 4) Brace D.K.: Measuring motor ability, New York, A.S. Barns and Co., 1927
- 5) Collins, V.D., and E.C. Hwe: The measurement of organic and Neuromuscular Fitness,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Fébruary 1924
- 6) Cureton, T.K.: Physial Fittnes appraisal and Guidance St. Louis, The C.V. Mosby Co., 1947.
- 7) Garfiel, E.: The Measurement of motor ability, Arch Psychology 62 April, 1925
- 8) Larcon, L.A., and R.D. Yocom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Health and Recreation Educatin. St. Louis, The C.V. Mosby Co., 1951
- 9) McCloy, C.H.: The Measurement of General motor Capacity and General motor abrlity, Research quarterly March 1939

## ◇ 院 內 動 靜 ◇

### ● 研修會 및 세미나

- 전국의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원 연수회가 7월 2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참석 교원은 기술과 54명 가정과 51명이었다.
- 중학교 의무교육 연한 연장에 따른 교육행정 제도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가 7월 30일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 來 院

- 世界比較教育聯合會 第4次 國際學術大會에 참석한 教授一行 75명이 7월 5일 來院하여 研究狀況과 教育放送을 살펴왔다.
- 미국의 콜롬비아대학 교수 Phil Lange 박사와 영국의 런던대학 교수 Edmund J. King 박사가 7월 12일 본원을 예방하여 “두 개의 측면에서 본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대학 총연합회 회장 Felipe Macgregor 박사가 7월 16일 본원을 예방하였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연수원 연수생 574명이 7월 31일 방문하여 연구 및 방송사업현황을 듣고 교육방송시설을 견학하였다.
- 말레이시아 인구교육 시찰단 Ms. Fatimah Abu Bakar 외 5명이 8월 6일 본원을 예방하였다.
- 송의여자 전문대학 교수 35명이 8월 22일 방문하여 연구사업현황을 듣고 교육방송 시설을 살펴왔다.

### ● 出 入 國

- 成侗濟 放送通信研究室長은 7월 22일부터 18일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방송통신 교육관계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교육방

송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 金永哲 教育政策研究 4室長은 7월 31일부터 11일간 유네스코 초청으로 태국에서 개최된 학교의 교육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 李定根 技術教育研究室長은 8월 12일부터 20일간 유네스코 초청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의 동남아 교육과정 Workshop에 참석차 출국하였다.
- 朴仁虎 研究員은 8월 17일부터 8일간 유네스코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개최된 생물교육에 관한 Workshop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 ● 招請講演

-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국”이란 주제로 威秉春 博士의 講演이 본원 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간에 걸쳐 있었다.

### ● 弘 報

- 새 시대 새 물결, 누구를 위한 내란 음모인가, 민주 복지 국가의 건설 등 3종의 정부 간 행물을 원내에 배포하여 전직원이 돌려가며 읽도록 하였다.

隔月刊 教 育 開 發 7호

〈비매품〉 1980年 8月 25日 인쇄  
1980年 8月 31日 발행

發行人 李 榮 德

財團 法人 韓國教育開發院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印刷處 正 化 인 쇄 문 화 사

1975年 8月 20日 등록 바-574

\*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不함.

